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3 NOV 16

3호 2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3 호 (241)
1964년 2월 (상)
(반 월 간)

차 례

민족 해방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자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생활에서는 위대한 혁명적 전환이 일어 나고 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거세찬 혁명의 폭풍이 이 대륙들을 휩쓸고 있다.

민족 해방 운동의 강력한 타격을 받고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가고 있다. 수억만 인민들에게 그처럼 많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준 저주로운 제국주의의 숨통이 여기서 끊어져 가고 있다.

력사는 일찌기 그 규모와 심도에 있어서 이처럼 광범한 지역과 인민들을 포괄한 혁명 운동을 보지 못 하였다.

민족 해방 투쟁의 전례 없는 앙양은 세계 혁명을 강력히 촉진하고 있으며 그 승리를 앞당기고 있다.

현실은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 대두한 수정주의는 현 시기 세계 혁명 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 있으며 민족 해방 투쟁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수다한 출판물들과 연설들을 통하여, 국제 민주 단체들의 회의들과 기타 온갖 기회를 리용하여 민족 해방 운동을 중상 비방하며 제국주의 앞에서의 투항과 타협을 설교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자신이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도 투쟁하지 못 하게 하며 제국주의를 각방으로 미화하고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리성》에 기대를 걸고 평화적 공존과 군비 철폐 등의 실현을 통하여 인민들이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 수 있다고 떠들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무장 투쟁이 세계 대전의 참화를 가져 온다고 하면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민족 해방 운동을 가리켜 《총장을 위한 운동》이라고 모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수정주의자들은 민족 해방 운동을 부르죠아 운동으로 묘사하고 그 혁명적 의의를 과소 평가하며 피압박 인민들이 자체로는 혁명을 할 수 없다는듯이 말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투쟁하는 인민들을 지원하지 않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기 위한 책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민족 해방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배격하며 그들의 영향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견결히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하며 모든 진보적 력량들과 굳게 단결하여 민족 해방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모든 공산주의자들 앞에 나선 숭고한 의무라고 인정한다.

1,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청산되여야 한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2 차 대전 후 이 지역에서 이미 50여개 나라들이 독립을 달성하였다.

조선, 중국, 월남 인민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큐바 인민은 미주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 섰다. 일련의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이 새 생활을 개척하고 있다.

과거에 오로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의 대상으로만 되였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과 민족 국가들이 형성 발전되고 있는 것은 위대한 력사적 사변이다.

오늘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어제'날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이 지역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인민들을 제멋 대로 억누르고 략탈하던 시기는 지나 갔다.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거대한 승리는 제국주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민족 해방 운동의 타격에 의한 식민지 노예 제도의 붕괴는 그 력사적 의의로 보아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형성에 다음 가는 현상이다.》(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성명)< 1 >

그러나 식민주의 제도는 아직 완전히 청산된 것이 아니다. 식민주의자들은 세계의 광대한 지역에서 의연히 류혈적 폭압과 강도적 략탈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 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앞에는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를 완전히 청산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사람들은 식민주의 제도가 이미 붕괴되고 그 잔재만이 얼마간 남아 있으며 민족 해방 혁명의 과업이 거의 완수된듯이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는 피압박 민족들이 식민지 통치의 기반에서 해방되고 다만 5천만 정도의 사람들만이 제국주의자들의 억압과 략탈을 받고 있는듯이 말한다.

이것이 사실인가?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오늘 세계에서 수억만 인민들이 의연히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식민지적 억압과 략탈에 시달리고 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민족 해방 투쟁이 앙양된 오늘 과거와 같이 로골적이며 직접적인 형태로 식민지를 통치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였다. 그들은 낡은 수법과 함께 교활하고 은폐된 신 식민주의의 수법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계속 식민주의 제도를 보존하고 있다. 현실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눈을 감지 않는 한 이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수 많은 나라들을 각이한 방법으로 의연히 예속 상태에 얽매여 두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일련의 나라들에서 그 괴뢰들을 정권에 들여 앉히고 이들을 통하여 식민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은 독립을 선포한 여러 나라들을 《련방》, 《공동체》 등과 같은 가구에 얽매여 두고 이 나라들을 과거의 종주국에 대한 예속 관계에서 벗어 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일부 나라들을 쎈토, 세아토와 같은 군사 블럭과 수 많은 쌍무적인 군사 동맹들에 끌어 들여 정치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오늘 미국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31 개 나라에서 중요한 것만 하여도 95 개소의 군사 기지를 포치하고 40만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영국은 10여 개 나라에 군사 기지를 설

치하고 7만 명의 군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불란서는 이 지역 나라들에 20만의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 수 많은 군사 기지들과 주둔군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며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는 목적에 리용되고 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원조》를 제공하고 그것을 미끼로 그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제의 《진보를 위한 동맹》은 이 지역 나라들에 자기의 침략적 의사를 강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들은 《평화군》, 《아프리카 십자로 계획》 등을 식민주의적 침투의 도구로 리용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 모든 책동으로 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 당하고 있으며 실제 상 식민지, 반식민지의 처지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남조선, 대만, 남부 월남, 일본의 오끼나와 등 여러 지역들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이 모든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지배가 광범한 지역에 의연히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제국주의자들은 약소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예속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는 2,000여 개에 달하는 미국 독점 회사들의 자본이 국가 자본과 함께 침투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투자는 2 차 대전 후 기간에 수 배로 장성하였다.

미국은 이 지역 나라들에 1962년 말 현재로 약 300억 딸라를 투하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거액의 자본 수출과 각종 식민지적 리권에 의거하여 이 지역 나라들의 경제의 중요 부문들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제는 철광석의 거의 전부, 동광의 90%, 아연광의 3 분의 2, 석유 생산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다. 그들은 농업과 목축업에서도 특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토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미국, 영국, 불란서 등의 독점 자본가들은 아프리카에서 중요 광업 부문들을 거의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장악하고 있으며 중근동 석유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이것은 식민지적 예속과 전횡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경제적으로 락후한 약소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자유로운 자본 수출과 경제적 통제는 식민주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이 나라들에 대한 정치 군사적 통제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식민주의 제도가 거의 다 소멸되였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지배가 식민지적 예속화의 뚜렷한 표현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풍부한 자원들은 제국주의 강도들에 의하여 혹심하게 략탈 당하고 있으며 이 나라 인민들의 로동의 열매는 독점 자본가들의 호주머니에 끝 없이 흘러 들어 가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나라들에서 얻는 리윤률은 본국에서보다 몇 배나 더 높다. 최근 년간의 리윤률은 미국에서 10~12%, 영국에서 8~9%였는데 독점 자본가들이 예속 국가들에서 얻는 리윤은 투자의 30~100%, 또는 그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실로 강도적 략탈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반식민지 처지에 있는 나라의 근로자들에게 장시간의 고된 로동을 강요하고서도 본국에서보다 몇 분의 1, 심지어는 몇 십 분의 1 밖에 안 되는 기아 로임마저 제대로 치르지 않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로부터 리윤, 리자로서 긁어 가는 리득과 원료들을 싸게 사 가고 상품을 비싸게 팔아 얻는 리득만 하여도 매년 약 300억 딸라에 달한다. 이것은 독점 자본가들이 이 지역 나라들에서 한 시간 동안에 340만 딸라, 하루 동안에 근 1억 딸라를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1 년 동안에 빼앗아 가는 이 금액으로는 5억 톤의 밀'가루를 살 수 있으며 이것으로 20억 인구가 1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긁어 가는 매 딸라, 매 파운드, 매 프랑에는 고역과, 빈궁과, 기아에 쓰러진 인민들의 피와, 땀과, 원한이 스며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통하여서도 약소 국가 인민들을 혹독하게 착취하고 있다. 그들은 《원조》를 받는 나라들에 그것보다 2~3 배나 더 많은 금액을 군사비로 지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35억 딸라의 《경제 원조》를 주고 약 100억 딸라의 재부를 략취하였다. 미제가 《원조》를 미끼로 들씌운 엄청난 군사비 부담과 가혹한 착취는 남조선 경제를 완전히 파멸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었다. 미제가 특별히 힘을 들여 《지원》한다는 남조선 경제의 여지 없는 파산은 제국주의 《원조》의 략탈적 본질을 가장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모든 전횡과 강도적 략탈은 식민주의 제도가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여 준다.

제국주의자들이 실시한 야만적 식민지 통치의 악결과로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 인민들은 계속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다.

유구한 문화와 풍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근면한 인민들이 살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가장 락후한 지대로 남아 있다.

오늘 아세아에서는 약 6,000만 명, 아프리카에서는 1,000만 명,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500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 하고 아무런 생활 원천도 없이 길'가에서 헤매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주민의 3 분의 2, 아프리카 주민의 대다수, 아세아의 수억만 사람들이 만성적인 기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해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혹심한 기아와 고역 때문에, 그리고 대수롭지 않은 병 때문에 죽고 있다.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는 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보다 20~30 년이나 짧으며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30 세에도 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 유아 사망률은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보다 3~4 배, 심지어는 그 이상에 달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참으로 이 나라들에서 인민들에 대한 대량 살륙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억압과 착취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게 혹심한 문화적 락후성을 가져다 주었다. 20 세기의 중엽인 오늘에도 라틴 아메리카의 7,000만 사람들, 아프리카 주민의 80%가 완전한 문맹자이다.

이 지역 나라들에서의 아동들의 취학률은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 비하여 3~4 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은 전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죄행에서 온 것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피압박 민족들의 불구 대천의 원쑤이다.

제국주의자들이 피압박 민족들에게 들씌우고 있는 이 참화를 더 지속시킬 수 있겠는가.

식민주의 제도를 하루라도 더 빨리 쓸어 버리며 식민지 통치의 악독한 후과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은 우리 시대

의 가장 절박한 요구이다.

식민주의 제도를 한 해라도 더 빨리 청산한다는 것은 수천만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며 수억만 사람들을 빈궁과 기아에서 해방하며 수천만 아동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는 것으로 된다.

오늘 이미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이 거의다 해방된듯이 말하는 사람들은 피압박 민족들의 고통을 본체만체하는 것이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용서 못 할 범죄를 은폐하는 것을 도와 주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식민지 지배와 략탈 정책을 온갖 방법으로 가장하고 있으며 세상에 식민주의 제도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듯이 떠벌리고 있다. 특히 미제는 그들이 식민주의와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후진 국가》 인민들의 《진보》를 위하여 힘 쓰고 있는듯이 요란스럽게 선전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선전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을 기만하고 그들을 민족 해방 투쟁에서 물러 서게 하려는 간계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어찌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선전에 맞장구를 치면서 더는 식민주의 제도가 남아 있지 않다고 사람들을 기만할 수 있겠는가?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은 피압박 민족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전횡과 략탈을 폭로 규탄하며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하루 바삐 제거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인민들이 완전한 민족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결코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멈출 수 없다.

피압박 인민들은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를 완전히 청산할 력사적 과업을 완수할 것이다.

2,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 스스로 물러 가지 않는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어떠한 《선심》도 기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식민지는 제국주의의 착취와 략탈의 무진장한 원천이다.

제국주의 독점 자본은 세계 수억만 피압박 민족들의 고혈을 빨아 배를 불리고 있다. 독점 자본가들은 다른 나라 령토를 침략하고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들을 또한 군사 전략 기지로, 대포'밥의 공급지로 리용하고 있다. 식민지는 바로 제국주의의 《생명선》이다.

력사는 아직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에서 스스로 물러 간 실례를 알지 못한다. 현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에서 물러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치의 땅이라도 더 그러쥐고 예속시키기 위하여 날뛰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쟁까지도 서슴없이 감행한다.

제국주의는 그 본성에 있어서 반동적이며 침략적이다.

제국주의의 본성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그는 궁지에 빠질수록 더욱 발악한다. 근로자들을 착취하지 않는 자본이란 있을 수 없으며 침략을 하지 않는 제국주의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이 독립을 달성하려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 투쟁을 견결히 전개하여야 한다고 일관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일부 사람들은 국제 무대에서 력량 관계가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변하였기 때문에 제국주의가 그 침략적 본성을 버리고 《리성적》으로 되였다고 말하면서 제국주의 두목들의 《현명

성》을 극구 찬양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시대가 제국주의와의 전면적인 협조의 시대라고 하며 이 협조를 통하여 세계 혁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제국주의자들이 《리성》을 발휘하여 식민지에서도 자진하여 물러 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제국주의자들과 사이 좋게 협상하고 타협하면 피압박 민족들이 독립을 《선사》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이며 인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세력 범위>, 자본 수출을 단념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일요일마다 부자들에게 기독교의 위대성을 설교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매년 수십억 루블리는 못 되더라도 수백 루블리라도 베풀어 주라고 권고하는 승려의 수준에까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레닌)< 2 >

제국주의자들과의 협조를 고창하는 사람들은 세계 혁명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로서 평화적 공존을 들고 나온다.

그들은 평화적 공존이 오늘의 핵 무기 시대에 혁명을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피압박 민족들의 선차적 과업도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라고 말한다.

평화적 공존은 서로 다른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적 공존은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지 예속 국가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적용될 수 없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은 지금도 제국주의자들에게 가혹한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노예의 처지를 강요당하고 있다. 억압하고 억압 당하는 량자 사이에서 무슨 평화적 공존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럼에도 제국주의자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피압박 민족들에게 식민지 노예의 멍에를 계속 감수하라는 것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최근에 와서 수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제국주의자들과 피압박 민족들 사이의 평화적 공존을 주장한 일이 없다는듯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변명도 그들의 본심을 감출 수 없다.

그들은 평화적 공존의 환경에서만 민족 해방 혁명의 완전한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갖은 애를 다 쓰고 있다. 평화적 공존이 보장되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제적 경쟁에서 제국주의가 패배할 것이며 따라서 민족 해방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떠든다. 그들은 민족 해방 운동이 평화적 공존에 복종하여야 하며 결국 혁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평화적 공존을 광고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2 차 대전 후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가렬한 투쟁의 결과에 이루어진 수 많은 나라들의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저들의 평화 공존 정책의 《덕분》으로 묘사하는 렴치없는 일까지도 꺼리낌 없이 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평화적 공존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에게 독립을 가져다 줄 수 없으며 제국주의와의 경제적 경쟁에서 달성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승리가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대신하여 해방을 가져 올 수도 없다.

민족적 독립이 평화적 공존에 의하여 달성된 것 같이 말하는 것은 남의 공로를 자기의 것으로 가로 채려는 비렬한 행동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피흘려 싸운 수천 수만 혁명 투사들과 인민들의 영웅적 업적을 모독하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또한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페가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을 위한 가장 믿음직한 방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페가 실현되면 제국주의자들이 군대와 무장을 가지지 못 하게 될 것이므로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식민지 피압박 민족들이 해

방 투쟁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의 실현을 위하여 무장을 놓아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가 실현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군비 철폐의 실현을 위하여 시종일관 모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2 차 대전 이후 18 년 간이나 렬강들 사이에 군비 철폐에 관한 회담이 진행되여 왔으나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거부로 인하여 진전을 보지 못 하고 있다.

군비 철폐를 반대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이다. 《무장 없는 제국주의》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제국주의자들은 지금도 계속 군비 확장에 광분하고 있으며 민족 해방 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피압박 민족들이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족 해방 투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수정주의자들은 투쟁하는 인민들의 면전에서 유엔을 우상화하는 데 종사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유엔을 통하여서도 피압박 민족들이 독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이 말한다. 일부 사람들은 유엔이 식민주의 제도의 청산을 실현하지 않으면 그 누가 이것을 해 내겠는가 하고 소리 높이 웨치고 있다.

유엔은 만일 그것이 헌장에 규정된 임무에 충실하다면 일정하게 피압박 민족들에게 유익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유엔의 어떤 결정이 피압박 민족들의 독립에 대한 담보로 될 수는 없다.

더우기 오늘 유엔은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침략의 도구로서 악용 당하고 있다. 미제는 유엔을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며 약소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감행하였으며 수백만 조선 인민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유엔의 간판 밑에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도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으며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미제는 유엔의 간판 밑에 콩고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그 수상 루뭄바를 학살하였으며 애국적 력량을 탄압하였다.

유엔의 간판 밑에 미 제국주의자들은 큐바의 주권을 침해하고 침략의 마수를 큐바 령토 내에 뻗치려고 하였다.

과연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이 어떻게 유엔을 통하여 민족적 해방을 달성할 수 있으며 식민주의를 청산할 수 있겠는가.

평화적 공존,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 유엔 등을 통하여 식민주의 제도를 청산할 수 있는듯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인민들을 사상적 면에서 무장 해제시키고 반제 혁명 투쟁을 마비시키며 피압박 민족들을 영원히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 얽매여 두려는 것이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적극 미화 분식하며 그 앞에서의 투항과 굴종을 설교하고 있다. 혁명적 인민들은 결코 이 길을 따를 수 없다. 력사는 민족 해방 투쟁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선심》에 기대를 걸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실패의 쓰라림을 맛 보지 않으면 안 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피압박 민족들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결정적인 투쟁에 궐기할 때 비로소 해방과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오늘 민족적 독립을 위한 피압박 인민들의 투쟁은 현대 식민주의의 아성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미제는 세계 반동의 원흉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다. 미제는 가장 큰 국제적 착취자이며 국제 헌병이며 인민들의 흉악한 원쑤다.

오늘 미제는 멸망하여 가는 자기 운명으로부터의 출로를 타국 인민들에 대한 침략과 국제 긴장 상태의 격화에서

찾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반대하는 침략 책동과 파괴 행위를 부단히 감행하고 있으며 새로 독립한 민족 국가들을 자기들의 지배 하에 복종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미제는 세계의 모든 반동 세력들과 결탁하여 온갖 진보적인 운동을 탄압 말살하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방해하며 탄압하고 있는 원흉도 바로 미제다.

미제는 많은 나라들을 사실 상 자기의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로 '전락시킴으로써 가장 큰 식민지 소유국으로 되였다.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이 나라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며 이 나라 자원을 마음 대로 략탈하고 있다.

미제는 무력으로 타국 령토를 강점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의 주권을 엄중히 유린하고 있다. 그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 궐기한 인민들을 반대하여 도처에서 침략 전쟁을 감행하고 있으며 인민들을 야만적으로 학살하고 있다. 미제의 발'길이 미치는 곳에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는 데가 없다.

이 모든 사실들은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며 세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투쟁의 예봉을 미제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오늘 미제는 날로 더욱 곤경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 세계 제패를 꿈꾸며 인민들에게 식민지 노예의 멍에를 들씌우려는 미제의 책동은 전 세계 인민들의 응당한 격분과 반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인민들이 굳게 단합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을 확대 강화하며 그를 더욱 궁지에 몰아 넣어야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는 교활한 신 식민주의적 책동을 도처에서 폭로 배격하며 파탄시켜야 한다. 세계 도처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높이며 전면과 후면에서 그에게 타격을 가하고 그 손발을 얽매여 놓아야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의 군사 기지를 철폐시키며 그 군대를 몰아 내는 투쟁을 할 것이며 미제 침략자들이 어디에서나 발 붙일 곳이 없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세계 피압박 인민들이 자기의 해방을 쟁취하는 길이다.

3, 혁명 투쟁은 민족 해방을 달성하는 유일한 길이다

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달성하는 것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 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민족적 과업이다.

피압박 인민들은 자신의 완강한 투쟁으로써 식민지 통치 제도를 청산하고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여야 한다.

《제국주의로부터의 식민지 국가 및 예속 국가들의 해방을 달성하는 것은 승리적인 혁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독립을 공짜로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쓰딸린) <3>

오늘 전반적인 정세는 민족 해방 투쟁에 매우 유리하게 조성되여 있다. 문제는 로동 계급의 당들과 혁명적인 선진 분자들이 이 투쟁의 선두에 서서 어떻게 혁명을 령도하는가에 달려 있다.

당의 정확한 령도는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결정적 담보다.

로동 계급의 당들은 혁명적 립장을 고수하며 정확한 전략 전술을 세우고 광범한 인민 대중을 투쟁에로 옳게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혁명의 승패는 무엇보다도 당이 인민 대중을 쟁취하는가 못 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혁명 군중을 쟁취하여 자기 주위에 묶어 세우지 않는다면 로동 계급의 당은 혁명 투쟁을 전개할 수 없으

며 혁명을 령도할 수도 없다.

로동 계급의 당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계층을 튼튼히 결속하여야 한다.

당은 특히 로동 계급의 선봉적 역할을 높이고 그 령도권을 확고히 보장하며 농민 대중과 청년 학생, 지식인들을 쟁취하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민족 해방 투쟁에서 로동 계급과 함께 농민 대중은 혁명의 주력 부대다.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결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들은 락후한 농업 지대로 남아 있다. 이 지역들에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은 거의 토지가 없거나 척박한 땅 조각에 의지하여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 빈농민이며 고용 농민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계급적 처지로부터 반제 반봉건적 민족 해방 혁명에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혁명성이 강하고 투쟁에서 견결하다.

로동 계급의 당은 민족 해방 혁명의 과업을 농민 대중의 리해 관계와 옳게 결합시키고 그들을 투쟁에 광범히 동원할 때에 혁명 투쟁을 성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서의 농민 대중의 혁명적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이 지역의 농민들의 혁명적 진출은 믿음성이 없고 보잘 것 없는 소부르죠아 운동이라고 하며 별로 큰 혁명적 의의를 가지지 못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벌써 혁명을 하려는 사람들의 립장이 아니다.

식민지 예속 국가들이 처한 구체적인 형편을 정확히 분석함이 없이 덮어 놓고 농민 대중을 무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민족 해방 투쟁에서 농민 대중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로농 동맹을 부정하며 로동 계급의 령도권을 거부하는 반맑스-레닌주의적 태도다.

오늘 민족 해방 투쟁의 앙양은 투쟁에 궐기한 농민 대중이 얼마나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농민을 정확히 령도할 때 어떻게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로동 계급의 당이 지닌 중요한 임무는 농민 군중을 혁명화하고 조직하며 농촌을 강력한 혁명의 기지로 만드는 것이다.

로동 계급의 당은 농민과 함께 청년 학생, 지식인을 투쟁에 광범히 끌어 들여야 한다.

식민지 예속 국가의 청년 학생, 지식인들은 자신의 압박 받는 처지로 하여 민족적 각성이 높으며 반제 의식이 강하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 속에 민족적 각성과 반제 의식을 고취하며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데서 청년 학생, 지식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로동 계급의 당은 청년 학생, 지식인들 속에서의 사업을 강화하며 이들을 조직하고 부단히 단련시키며 혁명 투쟁에 적극 동원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로동 계급을 비롯한 모든 반제 력량을 튼튼히 단결시키고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 세력들을 철저히 고립시킬 때 반제 민족 해방 혁명의 과업은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로동 계급의 당은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하며 인민 대중을 이끌고 나아가야 한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혁명 정세가 조성되였을 때에 결정적인 투쟁에 나서야 하며 유리한 정세 하에서는 서슴 없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인정한다.

더우기 인민들 자신이 투쟁에 궐기했을 때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들의 투쟁을 옳게 조직하고 거기에 의식성을 부여하며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정세가 요구할 때에는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

당은 이러한 혁명의 전위 부대로서, 혁명의 참모부로서 로동 계급과 혁명에 필요하다. 이와 반대로 당이 군중의 뒤꼬리를 따르며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

오늘 수정주의자들은 민족 해방 투쟁에서 로동 계급의 당이 령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 하도록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일부 당들은 혁명을 포기하고 혁명 투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정세가 무장 투쟁을 요구하며 인민들 자신이 무장을 들고 진출하는 결정적인 시각에 《평화적》 방법만을 제창하면서 그 나라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투쟁에 나서지 못 하게 방해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였을 때에도 제국주의자들의 간섭이 있을 수 있다고 위협하며 혁명 력량이 정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리 하여 수정주의자들이 내려 먹인 《평화적 이행》의 로선은 최근 년간 일련의 나라 민족 해방 투쟁에 큰 해독을 끼쳤으며 또 끼치고 있다.

손에 무장을 들고 혁명 투쟁을 전개하던 무장 대오 속에 《평화》병이 옮아가서 혼란을 조성하게 되였으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투쟁의 길에서 물러 서게 되였다. 일부 나라의 혁명은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반혁명의 류혈적 탄압 앞에서 실패하게 되였으며 혁명 력량은 큰 손실을 당하게 되였다.

혁명 군중은 무장을 들고 피 흘리며 싸우는데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투쟁에는 참가하지도 않고 팔짱을 끼고 뒤에 앉아서 《평화》 타령만 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혁명을 하자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는가.

제국주의와 반동 세력의 폭력에 항거하여 싸우지 않고 투쟁을 포기하며 반혁명의 공세가 무서워서 정권을 잡지 않는다면 피압박 민족들은 어느 때에도 해방될 수 없으며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 투쟁에서 능히 거둘 수 있는 승리를 거두지 못 하게 하였으며 피할 수 있는 희생도 면하지 못 하게 하였다.

만일 로동 계급의 당이 투쟁에 나서지 않고 혁명을 령도하지 않는다면 다른 계급이 그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은 혁명 군중을 잃고 대중의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로동 계급의 당은 무장 투쟁에 이르기까지의 온갖 형태의 투쟁에 철저히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리용하여 폭력적 투쟁과 비폭력적 투쟁을 유기적으로 배합하여야만 승리적인 해방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

만일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폭력적 방법에만 의존하고 폭력적 투쟁에 준비되여 있지 않는다면 혁명 력량은 정세 발전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는 례외 없이 폭력에 의거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피압박 인민들에게 평화적으로만 해방 투쟁을 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민족 해방 투쟁에서 폭력적 투쟁 형태를 취할 것인가 비폭력적 투쟁 형태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개 나라들이 처하고 있는 구체적 조건에 따라 그 나라 당이 결정할 문제다. 제국주의자들의 반항 여하와 혁명의 주객관적 조건에 따라 폭력적 투쟁이 전면에 나설 수도 있고 비폭력적 투쟁이 전면에 나설 수도 있다.

이것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각이할 수 있다.

물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에는 평화적 방법에 의거하는 것이 응당하다. 공산주의자들은 무턱대고 피 흘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계급 투쟁이 격화되면 많은 경우에 그것이

무장 투쟁으로 넘어 가게 된다. 전쟁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결코 혁명적 군중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군중을 탄압하는 착취 계급들에게 달려 있다. 지배 계급이 폭력으로 혁명 군중을 탄압하기 때문에 혁명 군중이 폭력으로써 대항해 나서는 것이다.》(김 일성) <4>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을 폭력으로 탄압할 때 인민들은 앉아서 희생만 당할 수 없다. 반동적 폭력에는 혁명적 폭력으로 대항하여야 한다. 무장한 반혁명에 대치되는 혁명적 무장이 없이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 세력의 폭압 밑에서 혁명 력량을 보존할 수 없으며 투쟁은 실패하지 않을 수 없다.

무장 투쟁은 반제 혁명 력량을 강화하며 적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고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투쟁 형태다.

피압박 민족들이 단결하여 무장 투쟁에 궐기한다면 그것은 불패의 힘으로 되며 어떠한 제국주의자들과도 싸워 승리할 수 있다.

일곱 자루의 총으로 무장 투쟁을 시작한 큐바 인민은 영웅적인 항쟁으로써 미제의 괴뢰인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승리하였다.

수백 자루의 렵총으로 무장 투쟁을 시작한 알제리아 인민은 수십만의 병력과 각종 현대적 무기를 동원한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7여 년간 영웅하게 싸워 승리하였다.

오늘 남부 월남 인민들은 미제의 무력 침략을 반대하고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으며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면서 자기들의 투쟁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베네주엘라, 앙골라 등 수 많은 나라 인민들이 치렬한 무장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비록 어려운 조건에서 투쟁하고 있으나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공산주의자라면 인민들의 이 영웅적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온갖 구실을 붙여 피압박 민족들의 무장 투쟁을 적극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

그들은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을 위한 무장 투쟁이 《세계 열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불꽃》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살 행위》이니,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무모한 행위》이니 하며 모독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세계 열핵 전쟁이 일어나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게 되면 독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고 웨치고 있다. 이 얼마나 괴이한 소리인가.

수정주의자들은 핵 무기가 출현하였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는 전쟁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한다. 그들은 핵 무기 시대에는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의 구별도 없어졌다고 한다. 그리 하여 모든 전쟁이 다 인간 살륙의 범죄이며 부정의의 전쟁이라고 떠들고 있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란폭한 위조이다.

물론 핵 무기는 거대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의 성격을 변경시킬 수 없다. 핵 무기는 전쟁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다 열핵 전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주장은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혁명을 그만 두고 제국주의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참고 견디라는 것이다. 결국 이 세상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주권도 자유도 영예도 다 저버리고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여도 좋다는 것이다.

그들의 책동은 제국주의자들과 한패가 되여 피압박 인민들을 투쟁에서 물러 서게 하려는 협박 공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갈로써 투쟁에 궐기한 인민들을 놀래울 수는 없으며 그들의 정의의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다. 그것은 헛된 시도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정체가 폭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말로써나마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무장 투쟁을 지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누구를 속일 수 있겠는가? 인민들은 누가 혁명을 지지하고 있으며 누가 혁명을 반대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

피압박 인민들은 전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과 단결하여 자유와 독립을 위한 철저한 반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그들의 침략 책동을 파탄시킬 것이다.

오늘 민족 해방 투쟁은 어느 때보다 로동 계급의 당들이 자기의 역할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직 혁명 투쟁의 원칙을 견지하는 그러한 당과 그러한 투사들만이 전위부대의 영예로운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이 아무리 발악한다 하여도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을 멈추어 세울 수는 없다.

민족 해방 투쟁의 종국적 승리와 식민지 체계의 완전한 청산은 불가피하다.

4, 독립을 달성한 인민들은 민족 해방의 과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한다

민족 해방 투쟁의 결과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민족 국가 인민들은 자기 력사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섰다.

그러나 정치적 독립의 달성은 민족 해방 혁명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민족 해방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사회는 계속 전진할 것을 요구하며 생활은 그 해결을 기다리는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계속 투쟁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나라를 발전시켜 나아갈 것인가—로동 계급의 당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어야 한다.

오늘 맑스-레닌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은 이 문제에서도 근본적으로 대립되여 있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독립을 달성한 민족 국가들에서 제국주의를 계속 견결히 반대하며 민족 민주주의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오직 이러한 경우에만 이 나라 인민들은 식민지 통치에서 물려 받은 세기적인 락후성과 빈궁을 퇴치하고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주의자들은 정치적 독립의 달성으로 민족 해방 혁명의 과업이 완수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들의 안중에는 반제 투쟁 과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로동 계급의 당이 부르죠아지들과 합작하여 경제 건설이나 하면 되고 혁명을 더 전진시킬 필요가 없다는듯이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독립을 달성한 나라 인민들의 혁명 도상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며 이 나라 인민들이 쟁취한 독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유해로운 주장이다.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후 인민 대중은 하루 속히 낡은 질곡에서 벗어 나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며 자기들의 생활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적 독립이 달성되였다고 하여 아무러한 투쟁도 없이 사회적 진보와 독립의 공고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오직 반제 반봉건적 혁명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며 새롭게 사회를 개조함으로써만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련속적인 혁명 과정이다.

민족 해방 혁명의 철저한 수행은 우선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낡은 기구를 완전히 파괴하며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지반을 박탈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농촌에서 토지 개혁을 실시하며 봉건적 생산 관계를 타파하여야 한다.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며 민족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외 관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부단한 압력과 침략 정책을 반대하며 독자적인 평화 애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모든 혁명적 조치는 제국주의 및 그와 결탁한 국내 반동 세력들의 반항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혁명의 진전에 따라 사회 각 계층들 사이의 계급적 모순이 점차 전면에 나타나게 된다. 새로운 력사적 환경에서 투쟁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전개된다.

사회 발전의 객관적 행정에서 일어나는 계급들 간의 투쟁은 피할 수 없다. 제국주의 및 그와 결탁한 반동 세력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사회 혁명 과업을 한 걸음도 전진시킬 수 없다. 로동 계급의 당은 민족적 및 계급적 리익을 옹호하며 혁명 력량을 결속하여 반제 반봉건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계급 투쟁의 법칙을 무시할 때 혁명이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것은 허다한 력사적 경험이 실증하고 있다.

사회 혁명이 심화되고 계급 투쟁이 첨예화됨에 따라 민족 부르죠아지들의 동요성은 점차 표면화된다.

외래 제국주의 및 봉건 세력들과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민족 부르죠아지들은 근로 인민들과 함께 반제 반봉건적 혁명을 수행하는 투쟁에 나설 수 있다. 다른 한편 그들은 근로 대중의 장성하는 정치적 각성과 혁명적 진출에 불안을 느끼며 중도에서 혁명을 포기하고 반동 세력들과 결탁하려는 경향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동 계급의 당은 민족 부르죠아지의 진보적 측면을 지지하며 그와 동맹하는 동시에 그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견제하며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민족 부르죠아지와의 관계에서 로동 계급의 당은 언제나 단결하며 투쟁하는 원칙적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의 당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부르죠아지들과의 동맹을 유지하며 함께 투쟁하여 나갈 것을 원한다.

로동 계급과 민족 부르죠아지가 통일 전선에서 계속 단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우선 민족 부르죠아지가 진정으로 전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가 아니 하는가에 달려 있다. 민족적 리익은 민족의 절대 다수를 이루는 로동자, 농민들의 리익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만약 부르죠아지들이 진실로 민족적 리익에 충실하려면 반드시 근로 대중의 리익을 존중히 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은 제국주의와 봉건 세력 및 온갖 반동 세력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 로동 계급과 진보적 부르죠아지 사이의 단결은 공고히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르죠아지들이 자기의 협소한 계급적 리익을 전 민족의 리익 우에 올려 놓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되며 따라서 각계 각층 인민들과의 단결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로동 계급의 당은 민족의 리익을 배반하는 반동적 부르죠아지의 이러한 행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만약 당이 반동화한 부르죠아지들을 덮어 놓고 지지하며 그들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면 당의 독자성은 상실될 것이며 혁명적 군중을 잃고 결국 혁명 자체를 망치게 할 것이다.

반동적 부르죠아지에 대한 태도에서 인도 공산당의 당게 집단은 수치스러운 투항주의적 립장에 굴러 떨어졌다. 당게 집단은 프로레타리아당의 혁명적 원칙을 집어 던지고 반동적 정권에 대하여 《무조건 지지》할 것을 맹세하여 나섰다.

그들은 반동 정권의 침략적 대외 정책을 《국제주의에 부합된다》고 하면서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리 하여 그 자신이 맑스-레닌주의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를 중상 비방하는 사회 배외주의자로 전락하였으며 공산당을 사분오렬케 하였다.

오늘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은 당게 집단의 추악한 행동을 지지하며 찬양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인도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에 대한 로골적인 배신 행위로 된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여기에서 쓰라린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로동 계급의 당은 민족 민주주의 혁명 행정에서 어디까지나 로농 동맹을 튼튼히 하며 각계 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통일 전선에 굳게 단결시켜야 한다.

민족 해방 혁명의 종국적 승리와 사회의 혁명적 개조는 결국 로동 계급의 당의 힘과 로농 동맹의 견고성에 달려 있다. 로동 계급의 당이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한 광범한 인민들의 통일 전선을 옳게 조직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령도하여 나간다면 혁명에서 능히 주도권을 장악하고 혁명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생활이 제기하는 절박한 사회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사회 발전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독립한 인민들은 착취와 억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할 것을 지향한다.

그들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자본주의는 인민들에게 기아와 빈궁과 무권리밖에 가져 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직 사회주의만이 나라의 부강한 발전과 인민들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로동 계급의 당은 어떠한 정황 하에서나 자기의 원칙적이며 독자적인 립장을 견지하고 대중의 힘을 적극적으로 단합 동원시켜 새 사회 건설에 대한 인민들의 념원을 실현하여야 한다.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후 민족 국가들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기도를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는 것이다.

오늘 일부 사람들은 민족 국가들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민족 국가들과 제국주의자들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교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현 시기에는 다만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과 락후한 지역 사이의 구별》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본래의 침략적인 제국주의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과 서로 《협조》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 역시 민족 국가 인민들에게 혼란을 가져 오는 위험한 견해이다.

독립한 인민들이 진행하는 사회적 변혁과 혁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종전의 식민지에서 물러 서지 않았으며 새로운 형태로 부단히 침투하고 있다. 그들은 새로 독립한 인민들에게 각종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통제를 가하여 이 나라들의 정치적 독립을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려고 책동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서슴없이 무장 침공까지도 감행하며 민족 국가들을 전복하기 위한 각종 파괴 활동을 진행한다.

정치적 독립이 달성된 후 민족 국가들에서 반제 투쟁은 약화되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의연 첨예하게 진행되며 각 방면에 걸쳐 더욱 복잡화된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을 해방된 인민들의 《벗》이나 《은인》처럼 묘사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소위 《원조》도 민족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도와 줄 수 있다는듯이 꾸며 대고 있다. 그들은 미제의 《원조》가 《수세기 동안 뒤떨어진 인민들로 하여금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마치도 군비 철폐를 실시하여 거기에서 얻어 낸 돈으로 《후진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돌릴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가까운 력사적 기간 내에 이 나라들은 선진 공업 국가의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후진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놓게 될 것이라고 떠든다.

이 모든 것은 실로 잠꼬대와 같은 황당무계한 소리다.

이것은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계급적 립장에서 얼마나 멀리 굴러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소위 《원조》에 의거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경제 발전을 이룩한 실례가 있는가?

그와는 반대로 현실은 제국주의의 《원조》에 의존하면 할수록 정치적 독립을 위태롭게 하며 경제 형편을 악화시키게 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소위 《원조》는 민족적 독립 국가들을 다시 예속화하기 위한 신 식민주의의 올가미에 지나지 않는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표면 상으로는 호상간의 <친선>과 <단결>을 주장하나 뒤에서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파괴 공작을 진행하며 <협조>와 <원조>를 표방하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른 나라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김 일성)< 5 >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와 략탈을 통하여 배를 불린 제국주의 강도배들이 갑자기 《선심》을 쓰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경험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나라들에서는 민족적 독립의 공고화와 나라의 정치 경제 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에 그 나라 통치 집단이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였거나 그 괴뢰로 전락된 곳에서는 사실 상 여전히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 처지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독립을 쟁취한 나라들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거하여 민족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할 수 없으며 평등한 기초 우에서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로 말미암아 락후한 경제를 유산으로 넘겨 받은 민족 국가 인민들 앞에는 새 사회 건설에서 적지 않은 난관들이 존재한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자력 갱생의 길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의거하여서는 나라의 경제를 자립적 토대 우에서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없다. 자기 나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내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야만 제국주의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 날 수 있으며 력사적으로 최단 기간 내에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외부의 원조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다.

외부의 원조에 대하여 말한다면 민족 국가들의 경제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해방된 인민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며 서로 원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한다.

이 나라들에는 풍부한 자원과 유리한 자연 조건이 있다.

경제 기술적 발전에 있어서 이 나라들은 각이한 수준에 놓여 있다.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경제 기술들을 서로 교환하고 호상 방조한다면 각 민족 국가들에서의 경제 건설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먼저 해방되였거나 비교적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들은 뒤늦어 민족적

독립의 길에 들어 선 인민들을 적극 도와 주어야 한다.

해방된 인민들의 긴밀한 뉴대와 호상 원조는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침략과 경제적 침투를 분쇄하며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민족의 번영을 가져 오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새 사회 건설에서 민족 국가 인민들은 사회주의 나라들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주권의 존중,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민족 국가 인민들에게 허심하고 겸손하게 대하며 성의 있는 원조를 주어야 한다.

오늘 사회주의 국가들이 민족 국가들에 주고 있는 경제 기술적 원조는 이 나라들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원조는 무엇보다도 원조를 받는 나라들의 독립의 공고화와 번영을 도와 주려는 진정한 념원에 립각하였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의 소위 《원조》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는 어떠한 정치적 부대 조건도 있어서는 아니 되며 경제 기술적으로 가장 효과적이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원칙이 위반된다면 민족 국가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신을 저락시키며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민족 국가들에 대한 원조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절대로 계급적 원칙을 저버릴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제국주의와 결탁한 나라의 반동 계층들에게 원조를 주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를 반대하는 데 사용하도록 군사 원조까지도 꺼리낌 없이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제국주의자들과 경쟁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결코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과 민족 국가 인민들 앞에서 제국주의자들과 한패가 되여 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기의 벗과 원쑤를 구별하지 못 하면 그것은 위험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응당 비판되여야 하며 즉시 중지되여야 한다.

나라의 자주적인 발전을 고수하며 제국주의의 새로운 침략을 반대하는 민족 국가 인민들의 투쟁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어떠한 음모 책동도 민족적 독립의 길에 들어 선 인민들의 전진을 가로막지 못 할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비방 중상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인민들은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훌륭히 다스리며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킬 것이다.

해방된 인민들은 다시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될 수 없다.

5, 민족 해방 운동은 현 시대의 위대한 혁명 력량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운동은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일환이며 그 강력한 동맹군이다.

자본주의 국가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는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과의 직접적 동맹 없이는 불가능하며 식민지 민족 문제의 종국적 해결은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세계 혁명 발전에서 민족 해방 운동이 가지는 의의와 그 역할은 실로 거대하다.

레닌은 일찌기 민족 해방 투쟁이 담당하게 될 거대한 혁명적 역할을 예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날 수백 수천만의 주민들이—사실 상

세계 인구의 절대 다수가—독자적이며 적극적인 혁명 력량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박두하는 세계 혁명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최초에는 민족 해방을 지향하였던 세계 인구의 대다수 운동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반대하게 되여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혁명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 6 >

레닌의 예언은 지금 현실로 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으며 방대한 자연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

이 거대한 힘을 가진 대륙들이 제국주의의 후비로부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결정적인 력량으로 전환되고 있다.

민족 해방 혁명은 들끓고 있으며 제국주의의 지반은 뿌리 채 뒤흔들리고 있다.

도처에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련속 무너지고 있으며 새로운 력량이 국제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모든 사실은 지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위대한 혁명 과정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세계 평화 위업은 거대한 힘을 얻고 있다.

민족 해방 투쟁은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지위를 강화하며, 국제 로동 운동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매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족 해방 투쟁의 전례 없는 앙양으로 이제 세계 혁명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심도 주지 않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는 충분히 또 절대적으로 보장되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민족 해방 운동은 사회주의 진영 및 국제 로동 운동과 함께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현 시대의 위대한 혁명 력량이다.

그러나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 일부 사람들은 민족 해방 운동의 혁명적 의의를 과소 평가하며 그것을 제국주의에 큰 타격을 줄 수 없는 소부르죠아 운동 또는 부르죠아 운동으로 묘사하고 있다.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사회주의 10월 혁명 후 동방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미 민족 해방 운동이 낡은 부르죠아 민족 운동의 테두리를 벗어 나 프로레타리아트가 령도하는 민족 해방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로동 계급이 출현하고 장성함에 따라 이 나라들에 로동 계급의 당들이 조직되였다. 이 당들은 민족 해방 투쟁의 선두에 서서 그를 령도하게 되였으며 이 운동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전반적 흐름에 합류하였다.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민족 해방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혁명의 거류를 어떻게 단순히 부르죠아 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무력한 소부르죠아 운동으로 묘사할 수 있겠는가.

로동 계급이 아직 형성되지 못 하였거나 미약한 나라들에서는 다른 계급이 민족 해방 운동을 지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맑스-레닌주의자들은 그 운동의 혁명적 의의를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록 그 운동에 프로레타리아적 요소가 없거나 적다하더라도 그것이 제국주의를 약화시키는 운동일 때에는 그것을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

현실을 바로 보는 사람이라면 현 시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제국주의의 《생명선》이 끊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데 대하여 제국주의자들 자신이 큰 비명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타격을 주는 실제적 결과를 보고 그 혁명적 의의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수정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이 미약하며 산업 프로레타리아트가 적기 때문에 이 지대가 현 시대의 강력한 혁명 투쟁의 무대로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제2국제당 지도자들의 낡아 빠진 반혁명적 《리론》의 재판에 불과하다. 바로 제2국제당의 변절자들이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혁명이 일어 날 수 없다고 뇌까렸다.

이들의 《리론》이 력사적 실천에 의하여 완전히 매장되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와 산업 프로레타리아트의 수효만 가지고서는 이러저러한 나라들에서 혁명의 전제 조건이 조성되였는가 안 되였는가를 기계적으로 따질 수 없다.

민족 해방 운동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도 산업 프로레타리아트의 수효에 의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고 산업 프로레타리아트가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도 로동 계급의 당이 수정주의에 물 들어 옳은 지도를 보장하지 못 하면 혁명의 불'길은 일어 날 수 없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아세아의 일련의 나라들과 라틴 아메리카의 큐바에서는 산업 프로레타리아트가 비교적 적었지만 사회주의 혁명이 이미 실현되였다.

제국주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혁명 정세가 조성되였는가 안 되였는가 하는 것을 개별적인 나라의 범위에서 고립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문제는 어느 고리에서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여 있는가, 어디에 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가 있는가, 어디에 혁명 력량이 준비되여 있는가 하는 데 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혁명적 폭풍의 지대로 전변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이 지대에 혁명을 낳는 심각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들이 집결되여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이 나라 인민들 사이의 모순, 이 나라 착취 계급들과 근로 인민들 사이의 모순이 엉켜 있으며 제국주의 렬강들 및 독점 자본 집단들 호상간의 모순이 이 지대에서 충돌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 사이의 모순도 또한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제국주의와 피압박 민족 간의 모순의 밑바닥에는 계급적 모순이 놓여 있다. 제국주의와 피압박 민족 간의 모순은 우선 제국주의 국가의 자본가 계급과 식민지 예속 국가의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대중 간의 모순이 기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식민지 예속 국가 로동 계급과 인민들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보다 이중 삼중의 혹심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다. 이 지역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인 민족적, 인종적 및 계급적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다.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은 토착 지배 계급들의 폭압과 결합되여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되여 있다.

이 모든 것은 이 지역 인민들에게 더욱더 혹심한 고통을 주고 있으며 그들을 불가피하게 혁명의 길로 추동하고 있다.

이 지역의 일련의 나라들에는 혁명을 담당 수행할 만한 주체적 력량이 준비되여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가장 포악한 탄압 속에서 자라 난 혁명적인 로동 계급과 함께 혁명적인 농민 대중들이 있으며 세련되고 단련된 일련의 맑스-레닌주의당들이 있다.

계급적 원쑤들과의 수 많은 전투에서

이 지역 인민들과 당들은 강력한 혁명 부대로 장성하였다.

아 모든 것으로 하여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를 때려 엎는 혁명의 폭풍이 그처럼 세차게 휘몰아 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앙양되는 민족 해방 혁명에 대하여 어떤 립장을 취하는가 하는 것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결국 혁명을 하자고 하는가 하지 말자고 하는가 하는 원칙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민족 해방 운동을 멸시하거나 그 힘을 믿지 않고서는 세계 혁명을 수행할 수 없다.

일부 사람들이 민족 해방 투쟁의 거대한 혁명적 의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혁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이 독자적으로 혁명할 수 없으며 오직 구라파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서만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거만하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한 나라 혁명에서의 프로레타리아 헤게모니에 관한 레닌의 명제를 외곡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구라파의 로동 계급이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령도하는 것은 응당한 것이며 그 누구도 감히 반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의심할 바 없이 한 나라의 범위에서 농민 대중과 근로 인민들에 대하여 로동 계급의 령도를 보장하는 것은 그 나라 혁명 승리의 불가결의 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이 명제를 구라파 로동 운동과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과의 호상 관계에 기계적으로 옮겨 놓는 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협잡 행위이다.

력사적 현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독자적으로 혁명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중요한 것은 국제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이 호상 지원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 량자는 어느 한쪽이 령도하고 령도를 받는 그러한 관계나, 그 어떤 종속 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구라파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지도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지역적 및 인종적 편견으로부터 출발하여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을 《렬등 민족》이라고 하는 반동적 부르죠아 관념의 산물이다. 맑스-레닌주의자는 결코 이러한 부르죠아 관념의 포로가 되여서는 안 된다.

맑스-레닌주의자라면 세계 혁명에 대한 《령도적 역할》을 맡아 나서겠다고 하기 전에 우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전선에서 혁명적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자신은 혁명을 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하는 투쟁을 멸시만 한다면 그것은 민족 배타주의적 행몽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반제 혁명 전선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민들의 투쟁 성과를 귀중히 여겨야 하며 거기에서 허심하게 배워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지역적 및 인종적 편견이 있을 수 없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투쟁하든 간에 공산주의자들은 세계 혁명을 수행한다는 공통적 목적 밑에서 서로 련결되여 있다.

만약 오늘 구라파에서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을 무한히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투쟁에 커다란 지원으로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의 혁명의 승리는 구라파 로동 계급에게 강력한 지원으로 된다. 그러므로 어느 지역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그것은 세계 진보적 인류의 공동의 승리로 되며 공동의 기쁨으로 된다. 정세가 성숙되고 대중들이 투쟁에 준비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혁명이 일어 나는 것이 못마땅한 것으로 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일부 사람들은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한 자기들의 반맑스주의적 견해를 내려먹이는데 흔히 자기 당의 《권위》와 《전통》을 내휘두른다.

이러한 당들의 전통과 권위에 대하여 말한다면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에 존경의 뜻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이러한 당들의 과거의 혁명 업적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높이 평가하며 그 경험에서 배우고 있다.

그러나 과거도 중요하지만 오늘 어떻게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세계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통이나 과거의 업적을 내세우는 것으로써 혁명 사업을 대신할 수는 없다. 투쟁의 불'길 속에서 혁명적 당들의 권위가 확립된다. 로동 계급의 당이 혁명적 립장에서 물러 선다면 존경을 받을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빈 말을 하거나 과거를 자랑하는 것으로써가 아니라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싸우는 인민들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세계 혁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민족 해방 운동을 강화하는 길—이것은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 력량을 강화하는 길이며 제국주의의 종국적 멸망을 촉진하는 길이며 세계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 길이다. 진실로 세계 혁명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혁명의 폭풍 지대로 화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 최대의 관심을 돌리며 그 승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해야 할 것이다.

6,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은 단결하여야 한다

오늘 세계의 모든 혁명 력량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국제 로동 운동, 민족 해방 운동은 현 시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전선에 서 있는 강력한 혁명 부대들이다. 이 혁명 부대들은 호상 굳게 단결하며 전투적 련대성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단결은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의 손에 장악되여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단결의 강화는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의 힘을 몇 배로 증대시킨다. 단결되여 있을 때에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은 제국주의의 그 어떤 진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

바로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의 단결을 무엇보다도 무서워한다. 그들은 세계 각국에서 장성하는 혁명 운동을 가로막기 위하여 모든 반동 세력을 규합하며 혁명 력량들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은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에 대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 국제 로동 운동, 민족 해방 운동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매개 전선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 투쟁을 견결히 전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이 제멋대로 날뛸 수 없도록 타격을 가하여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우선 사회주의 진영은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는 것을 맑스-레닌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의 본질에서 나오는 국제주의적 의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세계 혁명의 기지로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은 국제 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략탈 정책을 견결히 반

대하며 피압박 민족들의 권리를 옹호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피압박 민족들이 전개하는 무장 투쟁에 이르기까지의 온갖 해방 투쟁을 물심 량면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로동 계급의 동맹군을 강화하는 것이며 제국주의에 대한 공동의 승리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일부 사회주의 나라들은 자기의 이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혁명을 싫어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비위를 상하게 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을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방해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압박 민족들과 단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지배층과 타협하며 식민지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게 현상을 유지하는 데 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식민지 소유 렬강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로동 계급의 력사적 위업과 국제주의적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국제주의에 대하여 아무리 요란하게 떠들어 대도 제국주의와 직접 맞서서 피 흘려 투쟁하는 인민들을 적극 지원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무슨 진실한 국제주의적 행동을 찾아 볼 수 있겠는가.

사회주의 국가들은 혁명에서 먼저 승리하였다고 하여 결코 자기의 혁명적 임무를 다한 것 같이 생각할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아직 수억만 인민들이 자본의 억압 밑에 신음하며 그와 투쟁하고 있는 것을 못 본 체 할 수 없다.

사회주의 진영과 함께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 투쟁을 통하여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국주의 지배 하에서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은 다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인민들에 대한 략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국의 로동 계급과 식민지 인민들을 리간시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한다. 그들은 로동 계급을 민족 배타주의와 인종주의 사상으로 더럽히려 하며 식민지에서 략탈한 초과 리윤의 일부로 로동 계급의 상층부를 매수하여 로동 계급의 대렬을 와해시키려 한다.

자본주의 국가의 로동 계급은 제국주의 지배층의 이러한 간계와 음모 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 정책을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하여야 한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완전한 독립에 대한 권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여야 하며 자본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계급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이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며 또한 자기 자신의 계급적 해방을 앞당기는 길이다.

자본주의 국가 공산당들은 이러한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지배층에 추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하여 혁명 투쟁을 통한 직접적이며 결정적인 지원을 함이 없이는 사실 상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 사이의 혁명적 련대성이란 공담에 불과하다.

엥겔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타 민족을 압박하는 민족은 자유로울 수 없다.**》 < 7 >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사회주의 국가를 비롯한 모든 나라의 로동 계급이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에 대한 지원을 그 어떤 《부담》으로 생각하거나 《혜택》을 베푸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이다. 원조를 자랑하기만 좋아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원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 사이의 관계는 항상 호상 지지와 호상 원조의 관계이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의 지원은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의 승리를 용이하게 하여 준다.

다른 한편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은 제국주의에 타격을 줌으로써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자본주의 나라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준다.

《**…로동 계급의 승리와 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의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은 혁명적 공동 전선의 형성과 공고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쓰딸린) < 8 >

사회주의 진영을 비롯한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의 공동 전선—이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국제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하는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

오늘 반제국주의 공동 전선에서 국제 민주 단체들의 활동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제 민주 단체들은 그 산하에 세계의 수억만 근로자들과 진보적 력량을 망라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그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 민주 단체들의 활동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중심 과업의 하나다.

지난날 이 단체들은 이 방면에서 많은 일을 하였다. 이것은 피압박 민족들에게 커다란 고무적 힘으로 되였다. 사실 상 피압박 민족들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공고한 평화와 인민들의 행복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일부 사람들은 국제 민주 단체의 활동을 그 본래의 사명과는 딴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 그들은 이 단체들이 반제 투쟁을 포기하며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들은 국제 민주 단체들이 일면적으로 평화적 공존과 군비 철폐 로선에만 복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조직들을 혼란시키며 분렬시키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이 단체들의 회의 연단에서 제국주의를 규탄하는 목소리조차 울려나오지 못 하도록 한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면 부르죠아지들을 놀라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과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과 단결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이 강대한 동맹군을 잃어 버리면서라도 부르죠아 상층부와 손을 잡는 것이 중요한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지배층과의 타협과 결탁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다.

그들은 국제 민주 단체들을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기구로부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을 미화하고 그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여 인민들의 투지를 마비시키는 부르죠아 평화주의 단체로 전락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국제 민주 단체들은 결코 그 본래 사명에서 물러 서서는 아니 된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분렬주의적이며 투항주의적인 행동을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하며 반제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지역 인민들의 공통적 처지와 공통적 목적은 이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을 위하여 굳게 단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공동의 적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 때에 제국주의를 궁지에 몰아 넣고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민족적 해방을 달성하며 쟁취한 독립을 공고히 하며 자주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공동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정부들 사이에서, 직업 별 단체들 사이에서 련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회의들을 소집하며 공동 투쟁 기구들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호상 투쟁 경험을 교환하고 공동 투쟁 방침을 세우며 호상 지지와 협조를 더욱 강화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국제 관계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며 피압박 민족들의 권리와 요구를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제 로동 계급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세계 평화 옹호 운동을 강화하는 길이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이 지역 인민들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려는 이러한 노력도 맹렬히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

그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각 사회계 대표들이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 대책을 공동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 회의를 가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활동을 《반제 투쟁이라기보다도》 《지리적》, 《인종주의적》인 《폐쇄적 행동》이라고 중상 비방하고 있다.

얼마나 괴이한 론법인가.

맑스-레닌주의자라면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 오르고 있는 것을 그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라 응당 이를 기뻐하며 적극 지원하여 세계 혁명을 더욱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이 지역 인민들의 단합된 국제적 활동이 반제 투쟁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 특권을 보존하기 위한 수법의 하나로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남아 있는 종족적, 종교적 차이 기타를 리용하여 이 지역에서 인위적인 알륵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아세아에서는 아세아 사람들끼리,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끼리,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 하고 있다.

이 지역 인민들이 국제 회의들과 통일적인 공동 기구들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침략 책동에 공동으로 대처할 방도를 세우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

《인종주의》니 《지리적》이니 하는 터무니 없는 구실을 붙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위한 활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 인민들을 호상 리간시키고 반목시키려는 제국주의의 정책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의 력사적인 반둥 회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세계 평화 위업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이미 조직되여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는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위한 공동 조직을 반대할 하등의 근거도 없다.

요컨대 일부 사람들이 이 지역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반대하는 진의도는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의 불'길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데 있으며 근본적으로 혁명을 싫어하는 데 있다.

우리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진영을 비롯한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우리 시대 인민들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기본 담보라고 확신한다.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은 굳게 단결하여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와 민족적 억압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 ❋

오늘날 수정주의자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민족 해방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 있다. 그들은 지금 각 나라 로동 계급의 당들을 분렬시키고 파괴하는 길에 들어 서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자기 당의 권위를 악용하여 각국 당들에 수정주의를 내려먹여 그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일부 당들은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한 옳은 령도를 보장하지 못 하고 있으며 로동 계급의 혁명적 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남의 당 내부 문제에 되는 대로 간섭하며 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들은 일련의 당들에서 견실한 맑스-레닌주의자들을 배척하며 이들을 당 대렬에서 제거하는 일대 소동을 벌려 놓고 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자기들의 수정주의를 부식하고 합리화하는 데 악용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지시와 강요에 따라 일부 당들에서는 맑스-레닌주의자들의 혁명적 활동을 억제하며 그들에게 《종파주의》, 《분렬주의》 등 온갖 사상적 감투를 씌워 박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들을 당 대렬에서 부당하게도 내쫓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상 각국 당들을 분렬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는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당을 공고히 하는 혁명적인 조직 원칙이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 원칙에서 당 대렬을 강화하며 당의 전투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이 수정주의자들에 의하여 도리여 당을 분렬시키며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는 데 악용당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당들에서 부당하게 축출 당한 견실한 맑스-레닌주의자들은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단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새로운 공산주의적 조직들을 구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발생한 의견 상이는 맑스-레닌주의와 세계 혁명의 운동과 관련된 원칙적 문제로 발전하였다.

의견 상이 문제를 어물어물 그 대로 덮어 둔다면 그것은 수정주의를 더욱 조장시키여 세계 혁명의 위업에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의견 상이 문제의 해결을 그 어떤 《시간의 흐름》에 자연 발생적으로 내여 맡겨 둘 수는 없다고 인정한다. 혁명의 리익은 투쟁하는 인민들의 대렬에 맑스-레닌주의와 대치되는 어떤 사상이 침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국제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투쟁 대렬 내에 수정주의가 퍼지는 것을 한시라도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수정주의와의 투쟁을 끝까지 진행하여야 하며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옳고 그른 것을 명백히 갈라내야 한다. 당 대렬에서 수정주의를 철저히 청산하고 당을 맑스-레닌주의 기초 우에서 혁명적으로 꾸려야 한다. 그래야만 혁명 투쟁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보장하며 전진을 할 수 있다.

수정주의는 파산을 면할 수 없다.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맑스-레닌주의의 기초 우에서 새로운 위대한 단

결을 이룩할 것이며 승리할 것이다.

각국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일치하게 합의한 행동의 지침인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선언과 성명이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다 같이 맑스-레닌주의와 그리고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들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의 통일 단결을 고수하여야 한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은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차게 전진하자.

*　　*

<1>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성명,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60년 판, 37 페지

<2> 레닌 전집 제 21 권, 407 페지

<3> 쓰딸린 저작집 제 7 권, 191 페지

<4> 인민 군대 내에서 정치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35 페지

<5>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60 페지

<6> 레닌 전집 제 32 권, 629 페지

<7> 맑스 엥겔스 전집 제 2 판 제 18 권, 509 페지

<8> 쓰딸린 저작집 제 6 권, 200 페지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과 사회주의 건설

— 김 일성 동지의 청산리 현지 지도 4 주년에 제하여 —

김 일성 동지의 청산리에 대한 현지 지도가 있은 때로부터 4 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의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휘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창조와 변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더 힘 있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청산리 교시 이후의 4 년 간은 당 사업에서와 국가, 경제, 교육, 문화, 과학,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난 시기였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은 당 사업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 왔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이 높아지고 당의 핵심 진지가 공고화되였으며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이 제고되였다.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는 세포에 이르기까지 거침 없이 관통되게 되였으며 당 조직은 당원을, 당원은 군중을 발동하는 정연한 체계가 확립되였다.

전 당에 당적 사상 체계가 확고하게 수립되고 모든 사업에서 주체가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상하가 기맥이 상통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나감으로써 사업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군중을 교양 개조하여 당 주위에 결속시키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천리마 운동,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심화 발전됨에 따라 길 확실, 리 신자와 같은 공산주의적 교양자의 대렬이 급속히 확대되고 인간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이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되게 되였으며 도처에서 공산주의적 미풍이 만발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의 개선— 이것은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이 가져 온 또 하나의 빛나는 결실이다.

지난 4 년 간에 우리 당은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경제 지도에 적용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지도에서 절실하게 제기되였던 경리 운영 문제를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적응하게 능숙히 해결하였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계획화 사업을 비롯한 사회주의 경리 운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제고되고 일'군들의 사업 능력이 훨씬 높아졌다.

특히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가 창설됨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 가 하부 일'군들을 도와 주는 원칙, 생산에 대한 통일

적인 기술적 지도를 보장하며 필요한 물질적 수단들을 우로부터 아래에 공급해 주는 원칙이 구현되였으며 생산자 대중을 직접 기업 관리에 광범히 참가시킬 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자들의 정치적 열성이 비상히 제고되였으며 생산에서 전면적인 앙양이 일어났다.

인민 경제의 자립성이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이 급속히 촉진되였으며 보다 유족하고, 보다 문명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공업 총생산액은 1960~1963 년간에 1.7 배로 장성하였다. 중공업이 더욱 정비 보강되고 그것이 경공업과 농촌 경리 발전에 더 잘 복무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공업은 경제 발전과 기술 혁명 수행에 필요한 많은 종류의 대형 기계, 정밀 기계들을 만들고 있으며 더 좋고, 더 많은 인민 소비품들을 생산하게 되였다.

농촌 경리 분야에서도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 높이 발휘되게 되였으며 우리의 농업 생산은 사회주의 경제 법칙에 따라 확고하게 부단히 장성하게 되였다. 기후 조건이 불리하였으나 지난해에도 알곡 500만 톤 고지를 더욱 공고화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농촌에서의 기계화, 전기화, 수리화, 화학화도 급속히 촉진되고 있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의 빛나는 구현—이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방법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온 우리 당 정책의 위대한 승리이다.

당 사업 방법으로서의 청산리 방법

청산리 방법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 기간에 걸쳐 견지되여야 할 당 사업 원칙이다.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되면 될수록 청산리 방법은 더 폭 넓게, 더욱 깊이 관철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 방법은 군중 로선에 기초하고 있다.

군중 로선에 기초한 령도 방법은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된 조건 하에서 비로소 전 사회적 범위에서 관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며 또 이러한 령도 방법을 철저히 관철할 때에만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군중 로선에 기초한 혁명적 사업 방법은 일찌기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확립되였으며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는 새로운 환경에서 그것은 더욱 풍부화되고 발전되였다. 이것이 바로 청산리 방법이다.

그러므로 청산리 방법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조선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확립된 혁명적 사업 방법이 사회주의의 조건에 적응하게 개화 발전된 것이라고 말한다.

청산리 방법은 우리 당의 수중에 장악된 사회주의 건설 촉진의 강유력한 무기이다.

《청산리 방법의 기본은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며 지도 일'군들이 대중 속에 들어 가 사람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대중의 열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것이다.》 (1961년 2월 6일,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청산리 방법은

첫째로, 일상적으로 하부에 내려 가 아래 일'군들과 군중을 구체적으로 도와 주며,

둘째로,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세째로,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밀접히 결합시키고 모범을 창조하여 일반화하며,

네째로, 일체의 지도 사업에서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 고리를 포착하여 거기에 력량을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청산리 방법의 이러한 요구들을 구현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더욱 높이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당은 이 요구들을 철저히 관철할 때에라야만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힘있게 불러 일으키고 그들의 지혜와 힘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현하는 투쟁에 남김 없이 동원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력사적 과업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발전하는 행정에서 청산리 방법은 국가, 경제, 문화 등 모든 기관들과 모든 지도 일'군들의 사업에서 례외 없이 견지되여야 할 원칙으로 된다.

국가,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 매개 단위, 전체 지도 일'군들의 사업에서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것은 사회주의 건설 발전의 객관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며 그것을 주동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되는 행정은 력사 발전에서 주관적 요인의 역할이 부단히 증대되는 과정이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확립은 벌써 사회 발전에서 주관적 요인의 역할을 전례 없이 제고시킨다. 생산 수단이 사'적 소유로 되여 있는 자본주의 하에서 맹목성이 전 사회를 지배하며 사회의 경제 법칙이 주로 대중의 자연 발생적인 활동을 통하여 작용하게 되는 것과는 반대로 사회주의 하에서는 인간의 능동성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사회적 법칙들은 인간의 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작용하게 되며 인간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리용되게 된다.

그것은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확립됨으로써 전체 사회, 그의 모든 성원들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리해관계와 목적을 가지게 되며 그들의 주관적인 지향이 객관적 법칙의 작용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주의 하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앞날을 과학적으로 예견하면서 자기의 력사를 창조하게 되며 사회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사회주의는 바로 착취자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광범한 근로 대중의 이러한 의식적인 활동에 의해 건설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주관적 요인, 당과 로동 계급 그리고 전체 광범한 근로 대중의 의식적 활동이다.

이것은 물론 사회주의 조건에서 우연성, 맹목성의 온갖 요소들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이러저러한 정도로 남아 있게 되며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건설이 가일층 진척됨에 따라 그것은 점차 적어지게 된다.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되면 될수록 사회가 더욱 조직화되고 생산이 고도로 사회화되며 인민 경제의 기술적 장비가 더욱 제고되는 조건에서 주관적 요인의 역할, 의식성의 의의는 더욱더 높아지게 되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여야 한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필연적으로 대중들에 대한 지도에서 행정적 및 강제적 방법이 점차 뒤로 물러 나게 하며 근로자들의 의식성과 자각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높이게 하는 해설과 설복에 의한 당적 방법을 전면에 나서게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되는 객관적 과정 자체가 결국 고유한 의미에서의 당 사업 방법인 청산리 방법이 국가, 경제, 문화 등 모든 기관의 사업에 더욱 일반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청산리 방법을 일반화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발전하는 현실에 상응하게 모든 부문에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적 사업 방법을 결정적으로 근절하고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켰으며 모든 사업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화시켰다.

우리 나라에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이 전면적으로 관철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우리 당이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에 대한 당 위원회들의 《키잡이》 역할을 제고하며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문제를 훌륭히 해결한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에서 당과 그의 인전대들과의 호상 관계를 전면적으로 분석하면서 모든 사업 단위들에서 최고 지도 기관으로서의 당 위원회들이 키잡이 역할을 옳게 수행할 데 대한 전면적인 해명을 주었다.

당 위원회들의 키잡이 역할이 제고되는 행정에서 혁명 과업 수행에 대한 그의 방향 상 지도와 집행에 대한 장악이 현저히 강화되였으며 행정 기관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이 비상히 제고되였다. 이것은 당이 행정을 대행하거나 또는 행정의 뒤꼬리를 좇아 다니는 것과 같은 현상을 근본적으로 청산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있다.

이리 하여 우리 나라에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은 모든 부문에서, 당 내부 사업에서,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의 사업에서, 이 기관들에 대한 당의 지도에서 전면적으로 구현되게 되였으며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창조적 열의가 들끓고 계속 혁신이 일어 나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당의 정치적 령도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준다.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당 기관들을 행정화하고, 당의 정치적 령도를 행정적 방법으로 대치시키는 것은 당의 령도의 본질을 외곡하며 당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하시키는 결과 밖에 가져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가지고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근로 대중의 창발성과 자각적 열성을 고도로 발양시킬 수 없으며 프로레타리아트의 자각적 규률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 당 대렬의 조직 사상적 강화와 그의 전투력의 부단한 제고, 혁명 진지의 가일층의 공고화—이 모든 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일 데 대한 중요한 문제를 현명하게 그리고 정확히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이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 당이 맑스-레닌주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으며 그것을 창조적으로 해결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경제 관리에 구현된 청산리 방법

경제에 대한 관리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 것은 매개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이후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며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중심적인 문제이다.

당은 나라의 구체적인 력사적 조건과 수립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상응하게 경제 관리 운영을 부단히 완성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리 형태를 창조하여야 한다.

관리 운영을 어떻게 완성하는가 하는데 따라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문제가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사회주의적 관리 운영 문제 해결에서의 기본은 바로 생산자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다.

맑스주의자들은 근로 대중의 정치적 열성과 생산 의욕을 높이고 그들의 창조력을 고도로 발동시키는 사업을 떠나서 생산 장성의 기본 방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물론 경제 관리 운영에는 많은 사업들이 포괄되고 있다. 인민 경제 발전의 계획화, 생산 및 로력 조직, 물질적 및 기술적 수단들의 보장, 사회주의적 분배 등이 모두 그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경제 관리 운영의 종국적 목적인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여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 운영 체계와 방법에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관리의 모든 사업들이 근로자들의 정치적 열성과 생산 의욕을 제고시키는 데로 결정적으로 돌려지도록 하는 것이다.

생산자들의 정치적 열성과 생산 의욕이 고도로 앙양될 때 그들의 창발성과 재능은 최대한으로 발휘되고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이 다 동원되게 되며 생산은 급속히 장성하게 된다.

더우기 관리 운영의 모든 사업들은 생산에 대한 근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그들이 생산 관리에 직접 참가하게 될 때 훌륭히 개선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경제 관리에 군중 로선을 관철하는 문제는 바로 청산리 방법의 기본 요구를 관리 운영 체계에 구현함으로써 훌륭히 실현되게 되였다.

우리 당이 창조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는 공업 및 농업에 대한 지도에서 청산리 방법의 연장이며 그의 구현이다.

새로운 지도 체계 하에서는 우선 우로부터 통일적인 지도가 아래에 관통되여 대중 속 깊이 침투되게 되였다.

우로부터의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도— 이것은 근로자들의 창발성을 높이며 그들의 열성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기본 담보이다. 우로부터의 통일적인 지도를 거부하고 경제 지도를 분권화하는 방법으로써는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높일 수 없으며 그들의 생산 의욕을 전면적으로 계발시킬 수 없다. 오직 당의 정책과 유일적인 의지가 대중 속에 깊이 침투되여 그들 자신의 것으로 전화될 때 대중은 생산 장성을 위한 지혜와 재능을 남김 없이 발휘하게 되며 창발적인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새로운 공업 및 농업 지도 체계 하에서는 성, 국들의 지도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까지 침투하게 되였으며 관리 부서들 간의 책임 한계와 분공이 명백히 되고 계획 및 생산 지도와 기술 지도가 유기적으로 통일되게 되였으며 설비, 자재, 후방 공급 물자들을 우에서 아래로 공급하여 주는 원칙이 확립되였다.

이리 하여 경제에 대한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도가 더욱 강화되고 우에서 제기된 방침과 의도가 밑에까지 관통되게 되였으며 지도 일'군들은 잡다한 업무에서 벗어 나 생산 기술 지도에 력량을 집중하며 군중 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 그들의 자각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생산자들은 생산에서 떨어짐이 없이 자기의 열성과 능력, 지혜를 남김 없이 발휘할 수 있게 되였다.

새로운 공업 및 농업 지도 체계 하에서는 또한 생산자 대중을 경제 관리에 광범히 참가시키는, 공산주의적 과업에 속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성과 있게 해결되게 되였다.

근로자 대중을 경제 관리에 자각적으로 인입하는 문제는 명령이나 지시 등과 같은 행정적 방법에 의해서는 옳게 실현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사람들을 해설과 설복의 방법에 의하여 움직이게 하는 당적 령도를 강화함으로써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 하에서는 바로 당의 령도적 역할이 결정적으로 제고됨으로써 대중이 작업반 및 공장이나 농장의 전반적인 생산 과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돌리며 관리 운영 사업에 자각적으로 광범히 참가하게 되였다. 공장, 기업소와 농장들에서 계획화, 설비 관리, 계산, 정량, 제품 검사, 사회주의적 분배 등과 같은 기업 관리 사업들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화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경제 관리의 기본 문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군중 로선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리 운영 체계가 창조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에 의하여 수립된 새로운 공업 및 농업 관리 체계는 청산리 방법이 경제 관리 운영 체계에 구현된 것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위대한 힘으로 되고 있다.

경제 관리에 구현된 청산리 방법의 위대한 생활력은 전 해에 비하여 훨씬 장성된 작년도 계획을 선철은 106%, 강철은 105%로 기한 전에 초과 수행한 김 책 제철소와 지난해 불리한 자연 조건에도 불구하고 군적으로 알곡 정당 수확고를 1962년에 비하여 890 키로 그람이나 더 높인 숙천군의 획기적인 성과들과 오늘 전국 도처에서 일어 나고 있는 혁신들이 잘 보여 주고 있다.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며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를 계속 심화 발전시키는 여기에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보람찬 과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주요한 담보가 있다.

청산리 방법의 관철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행정에서 우리는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모든 부문의 사업 방법을 당적 사업 방법으로 전환시켰으며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후 기본 문제로 제기되였던 관리 운영 문제도 성과 있게 해결함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 4 년 간의 력사적 경험은 청산리 방법을 더욱 튼튼히 틀어 쥐고 더 잘 관철하는 것이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더한층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급속히 촉진시키며 혁명 기지를 반석 같이 꾸리는 확고한 담보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가 제시한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을 성과 있게 수행하고 7 개년 계획의 높은 고지를 점령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켜야 할 어려운 혁명 임무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 나서고 있는 이러한 혁명 임무는 오직 각급 당 조직들과 모든 지도 일'군들이 일상적으로 하부에 내려 가 아래 일'군들을 도와 주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혁명적 사업 방법,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할 때에라야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청산리 방법을 관철함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시, 군 당 위원회까지 포함한 우리 당의 초급 진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다.

초급 진지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대중 속에 침투시키고 그를 직접 집행하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실현하는 거점으로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초소를 담당하고 있다.

초급 진지를 조직 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그의 전투력을 높임이 없이는 군중을 발동시키고 군중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청산리 방법의 기본 요구를 실천적으로 관철할 수 없다.

특히 초급 진지가 모든 부문의 초소를 담당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를 전반적으로 강화함이 없이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 걸쳐 청산리 방법을 관철시킬 수 없다.

초급 간부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그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며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는 것은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청산리 방법을 관철함에 있어서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바로 잡는 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청산리 방법은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을 체현한 혁명적인 사업 방법이다. 따

따서 군중에 대한 옳은 관점, 군중적 사업 작풍을 떠나서는 그의 관철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작풍 문제는 군중과 일상적으로 사업하며 생활하고 있는 초급 일'군들의 경우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일'군들이 주관적으로는 군중 속에 들어 가서 그들과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고 하면 이것은 많은 경우 사업·작풍 상 결함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풍을 바로 잡는 것은 모든 사업에 착수함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해결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청산리 방법의 정확한 관철도 실은 여기에 크게 달려 있는 것이다.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개선하는 것은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사상 관점에 관한 문제이며 이것은 일'군들의 당적 수양을 떠나서는 해결될 수 없다.

모든 일'군들은 오직 일상적인 당 생활과 자체 수양을 통하여 자기를 부단히 완성해 나감으로써만 겸손하고 순박하고 사업과 생활에서 이신작칙하는 군중적 사업 작풍을 소유할 수 있으며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다.

청산리 방법을 관철함에 있어서 또한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적인 령도 방법은 그에 상응한 높은 사업 능력을 요구한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 하여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쓸모 없는 것으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산리 방법도 그것을 능숙하게 적용할 줄 알도록 일'군들이 준비되여 있지 못할 때는 결코 자기의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특히는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경제 기술 지식과 높은 일반 지식을 습득하는 데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모든 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고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전반적 지식을 소유하게 될 때에라야만 현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정확하게 분석 종합하고 그에 기초한 과학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며 군중을 더 잘 조직 동원할 수 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행정에는 뜻하지 않았던 난관도 있을 수 있고 애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과 함께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는 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가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청산리 방법이 있다.

당의 령도 하에 청산리 방법을 튼튼히 틀어 쥐고 나아갈 때 조선 인민은 반드시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하게 될 것이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혁명 운동과 전통 계승 문제

신 진 균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혁명 운동에서 전통 계승 문제를 항상 중요시하였으며 전통을 고수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영예로운 임무로 간주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자신이 창시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리론이 과거의 사회주의 리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그것이 과거 사회주의 리론의 계승이며 발전이라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엥겔스는 《반듀링론》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리론의 근원에 대하여 쓰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것은 처음에는 다만 18 세기의 위대한 불란서 계몽 학자들에 의하여 제창된 제 원칙의 가일층의, 이를 테면, 보다 철저한 발전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온갖 새로운 리론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도, 그 뿌리는 비록 깊이 〈물질적〉 경제적 사실 가운데 박혀 있다 하더라도, 우선 종래 축적되여 온 사상적 재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18 페지)

현대의 로동 운동, 공산주의 운동도 그것은 과거 운동의 연장이며, 계승이며, 발전인 것이다. 과거의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을 제쳐 놓고 오늘의 공산주의 운동을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오늘의 투쟁을 떠나서 미래의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생각할 수 없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은 종전의 공산주의 운동의 빛나는 결실이며 제국주의 시대에 와서 맑스, 엥겔스의 리론을 고수하고 발전시킨 레닌의 사상의 승리이다.

그 후 국제 로동 운동 및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 특히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구라파와 아세아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10월 혁명의 연장이며 그의 계승 발전이다.

오늘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로동 운동, 공산주의 운동 그리고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의 승리적 전진은 모두 국제적 령역에서와 자기 나라에서의 혁명 운동의 력사적 전통의 계승 발전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도 바로 과거의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결과이다. 우리는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1930 년대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 투쟁과 그 행정에서 이룩된 혁명 전통을 떠나서 오늘의 사회주의적 발전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우리는 항일 빨찌산들이 이룩한 혁명

전통을 이어 받음으로써만 18 년이라는 짧은 력사적 기간에, 3 년간의 가혹한 전쟁의 피해를 겪고서도 오늘과 같은 부강한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조선 혁명은 수입해 온 것이 아니다 …과거부터 공산주의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조선 혁명이 있다.

항일 투쟁에서 단련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없었더라면 해방 후에 우리 당을 창건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민주주의적 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지도 못 하였을 것이다.》(김 일성 선집 제 5권, 507 페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매개 나라 혁명 운동에서 하나의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로 된다.

❊ ❊

혁명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매개 나라 로동 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승리적 수행을 위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전통에서 배우는 동시에 반드시 자체의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혁명 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을 옳바로 잡으며 혁명 력량의 결속과 전투력을 강화하며, 이리 하여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보장하는 위대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혁명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것은 우선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문제이다.

공산주의 운동의 혁명 전통은 국제적 령역에서나 매개 민족에 있어서나를 막론하고 맑스주의, 레닌주의의 실현을 위한 투쟁의 전통이며 온갖 기회주의적 조류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의 승리의 전통이다. 혁명 운동, 공산주의 운동은 반드시 반맑스주의적, 기회주의적 경향과의 투쟁을 통해서만 전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맑스와 엥겔스의 위업이 그러했으며 레닌, 쓰딸린의 위업,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 10월 혁명과 그 후 사회주의 승리의 로정이 그러하였으며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현실이 또한 그러하다.

1920 년대로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는 처음부터 개량주의, 종파주의와의 투쟁의 력사였다.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이룩된 우리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은 바로 종파주의, 개량주의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의 승리의 결과로서 형성되고 공고화되였다.

맑스-레닌주의는 그것이 정당하며 진리이기 때문에 전능하다. 반맑스주의적, 반레닌주의적 기회주의 조류는 그것이 일시적으로 아무리 득세하고 혁명을 좀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혁명 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매개 나라 로동 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전통은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의 전통이다.

그러므로 혁명 전통을 계승하며 고수하는 것은 공산주의 운동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적 립장을 고수하는 문제로 되며 그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문제로 된다.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킴이 없이 혁명을 옳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 수 없으며 발전시킬 수 없다.

혁명 전통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맑스-레닌주의 원칙에서 물러 서는 것이며 공산주의 운동의 길에서 벗어 나 옆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의 지나 간 영광스러운 시기를 그어떤 《암흑의 시기》로 묘사하면서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실지에 있어서 혁명의 전통, 공산주의 운동 발전의 전통을 거부하는 것이다. 혁명 전통을 거부하면서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을 고수할 수는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응당 이러한 태도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진정으로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고수하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혁명 전통을 고수하며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혁명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것은 또한 매개 나라에서 혁명의 주체성을 견지하는 문제이다.

매개 나라에서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주체성의 립장 즉 맑스-레닌주의 일반 원칙을 자체의 민족적, 력사적 제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며 주체적 력량에 최대한으로 의거하는 립장에 튼튼히 서야 한다. 이것은 혁명 전통을 계승하는 문제와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는 어디서나 적용되여야 하는 혁명 운동의 일반적 지침이다. 그것은 각이한 나라들의 혁명적 실천에서 구체화되면서 환경,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적합하게 적용되며 거기에 각이하게 살이 붙는다. 이리 하여 매개 나라 혁명 전통에는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도덕과 전략 전술 원칙들이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체현된다.

로동 계급과 그의 당의 혁명 전통을 이루는 사상 체계, 투쟁 정신, 투쟁 업적과 경험은 본질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적이고 프로레타리아적인 동시에 민족적 특성을 띠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상과 투쟁 정신, 투쟁 경험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곧 소여 나라의 혁명 문제를 실정에 가장 적합하게 해결하며, 자체의 력량을 가장 잘 발동시켜 혁명을 최대한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 길이다.

일제 식민지 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류례 없이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 속에서 이룩된 항일 빨찌산들의 사상 체계와 투쟁 정신, 투쟁 경험에는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로 되는 자력 갱생과 군중 로선,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등 제 원칙이 가장 철저하게 구현되여 있다. 이러한 전통은 해방 후 새 조국 건설 행정에서 더욱더 개화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혁명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주체성 있게 수행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매개 나라의 혁명 전통에는 자체의 민족적, 사회적 형편에 가장 적응한 사상 체계, 투쟁 정신과 경험이 체현되여 있다. 따라서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자체의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킴이 없이는 주체성의 립장에서 자기 인

민의 요구와 실정에 맞게 혁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혁명 수행에서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주체성의 립장을 고수하는 길이다.

자체의 힘을 믿지 않으며 자기 나라의 혁명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살릴 줄 모르며 남만 쳐다 보고 그 장단에 춤을 추는 사람들은 남이 하는 수정주의마저 무조건적으로 받아 들임으로써 교조주의도 수정주의도 동시에 범하고 있으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배반하고 혁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는 결정적으로 배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명 전통을 계승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여야 한다.

혁명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것은 또한 당을 강화하고 혁명 력량을 꾸리며 그의 전투력을 높이는 문제이다.

혁명 투쟁 행정에서 이룩되는 전통—혁명적 사상, 업적, 경험들은 당의 뿌리다. 이 뿌리를 고수하고 왕성하게 자래우는 것은 거기에서 솟아 난 당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믿음직한 길이다.

따라서 당을 부단히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혁명 전통을 계승하는 것, 선행한 투쟁 과정에서 이룩된 우수한 것들을 이어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혁명 전통을 옳게 계승 발전시킴으로써만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히 할 수 있으며 대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울 수 있으며 혁명 력량을 반석같이 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당원들과 대중을 혁명 전통의 정신과 경험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당원들과 대중을 당적 사상, 혁명 전통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때에만 당대렬을 공고히 하고 대중을 당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킬 수 있으며 당에 대한 그들의 충실성을 확고히 할 수 있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 전통의 정신으로 교양함으로써 전 당과 인민의 사상 의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대중으로 하여금 당과 혁명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한결같이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또한 혁명 전통을 계승함으로써 《선렬들이 과거 혁명 투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신심을 굳게 할 수 있으며 매개 사람들에게 열렬한 애국심과 혁명적 투지를 북돋아 줄 수 있다.》 (김 일성 선집 제 5 권, 503 페지)

혁명 운동의 전통을 무시하면서 당을 강화 발전시킨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혁명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당의 뿌리를 잘라 버리고 당을 변생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 전통, 혁명 선배들이 이룩한 투쟁 정신과 경험으로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데 관심하지 않는 것은 사실 상 당대렬을 강화하고 그의 전투력을 제고하며 대중을 혁명 력량으로 꾸릴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혁명 전통을 계승한다 할 때 이는 혁명의 령도 핵심을 보위하는 문제와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혁명의 령도 핵심이 형성되는 과정은 곧 혁명의 전통이 이룩되는 과정이다. 령도 핵심은 계급과 대중의 오랜 투쟁

행정에서, 그 투쟁 자체의 요구에 따라, 그 투쟁 력량 속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령도 핵심은 그 어떤 개인의 의사나 선거에 의하여 갑자기 출현하는 것이 아니다.

령도 핵심에 대한 태도 문제는 혁명 전통에 대한 태도 문제로 되며 혁명에 대한 태도 문제로 된다.

혁명의 운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적 수행 여부는 당의 령도적 역할 여하에 의존하며 당의 령도는 령도 핵심의 역할에 의하여 좌우된다.

따라서 령도 핵심에 대한 충실성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으로 되며 령도 핵심을 보위하는 것은 곧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것으로 되며 혁명 승리의 주요한 담보로 된다.

혁명의 령도 핵심에 대한 전 당과 전체 우리 인민의 충실성과 헌신성—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

혁명 전통, 령도 핵심을 존중하며 고수하는 것은 비단 혁명의 승리적 수행을 위한 문제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혁명적 의리의 문제이며 공산주의적 도덕의 문제인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따라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을 위해 피흘리고 목숨 바친 혁명 선배들과 그들의 업적을 무한히 존중한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도덕적 품성이다.

혁명 선배들—그들은 오직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하여, 피압박 대중의 영원한 해방을 위하여, 바로 우리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들의 투쟁과 희생이 있은 덕택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고 우리의 사업과 성과가 있다.

혁명 선배들과 혁명 동지들, 더우기 혁명의 령도 핵심에 대한 경건한 태도, 사랑과 존경—이것은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공산주의적 인간성으로부터 자연 필연적으로 우러 나오는, 가장 아름답고 진실하고 성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혁명적 의리라고 말한다. 혁명적 의리—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류의 해방이라는 숭고한 목적 밑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투쟁 행정에서 형성되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 관계의 반영이다. 이것은 오직 프로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들에게만 고유한 것이다.

맑스주의 창시자들은 이러한 도덕의 원리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몸소 그 모범을 보여 주었다. 맑스와 엥겔스의 우의와 의리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이였지만 엥겔스는 자기들의 학설의 창시자의 영예를 전적으로 맑스에게만 돌리였다. 엥겔스는 맑스의 필생의 사업이던 자본론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여생에 그것을 채 마치지 못 할가봐 제일 걱정하였다.

맑스와 엥겔스, 레닌, 쓰딸린을 비롯

하여 전 세계 공산주의 투사들이 보여준 혁명적 의리는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됨으로써 그 어떤 환경에서도 서로 돕고 이끌면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힘과 용기와 신심을 얻어 낸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이것을 떠나서 공산주의자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 속에서는 배은망덕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없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소위 《개인 미신을 반대한다》는 소동을 일으키면서 과거의 혁명 업적을 말살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 도덕, 혁명적 의리와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것이다.

모든 나라 로동 계급과 진실한 공산주의자들, 혁명적 인민들은 이러한 행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다.

혁명 전통—이것은 귀중하고도 성스러운 것이다. 혁명 운동의 전통을 부인하면서 혁명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환상이며 기만이다. 혁명 전통을 거부하는 것은 공산주의적 도덕에 위반된다.

혁명 전통, 혁명의 령도 핵심에 대한 허무주의적, 배신적 태도는 공산주의 운동 발전의 대로에서 물러 선, 그 어떤 다른 《전통》을 내세우려는 이단적 태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수정주의자들은 그 어떤 책동으로써도 혁명의 전통을 결코 말살할 수 없다. 그것은 력사의 흐름과 함께 부단히 계승 발전될 것이며 매개 나라들에서와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줄기차게 뻗어 나갈 것이다.

＊ ＊

맑스-레닌주의자들은 혁명 전통을 철저히 고수하고 계승하며 혁명 발전의 매개 단계에 적응하게 더욱 개화 발전시키는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이러한 원칙적 립장에 서서, 혁명 전통을 부정하는 온갖 시도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하였으며 우리의 혁명 전통, 특히 1930 년대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에 이룩된 공산주의적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 당은 항일 빨찌산 투쟁 행정에서 준비된 력량을 골간으로 하여 창건되였으며 국가 건설, 인민 무력 건설도 바로 빨찌산들을 핵심으로 하여 실현되였다.

당은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에 이루어진 혁명적 업적과 경험에 기초하여 제반 민주 개혁과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을 제시하였고 해결하였다.

당은 우리 혁명을 령도함에 있어서 해방 후 민주 혁명 시기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과거 빨찌산 투쟁 시기에 축적된 경험에서 배우는 립장을 견지하였다.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킴에 있어서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 대중에 대한 혁명 전통 교양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이리 하여 당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혁명 전통의 계승 문제와 밀접히 결부시켰다.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 전통 교양이 공산주의 교양, 계급 교양과 통일되여 있으며 그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되고 있다.

혁명 전통 교양은 참으로 우리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을 당적 사상 체계로 무장시킴에 있어서 위력한 수단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은, 항일 빨찌산 투쟁의 간고한 로정과 해방 후 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의 력사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로정에서 언제나 우리 인민의 진두에 서서 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해 온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굳건히 뭉치여 있으며 그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있다.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당과 더불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살고 일하며 항일의 선렬들이 한 것처럼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헤아림이 없이 어떠한 난관이라도 뚫고 나아가는 높은 혁명적 정신과 기개를 떨치고 있다.

항일의 붉은 정신을 이어 받은 근로 대중의 이와 같은 혁명적 정신과 기개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천리마의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항일의 혁명 전통은 우리 시대에 와서 자기의 결실을 보고 있으며 개화만발하고 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혁명 승리와 조국의 륭성 발전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는 종국적으로 매장되고야 말 것이다

리 구 호

…그대는 《암흑》의
　　땅으로 알려지고
그대는 《폭행》과 《빈궁》의
　　나라로 불리였거니
원쑤들은 그대를 무덤으로
　　만들려고 발악한다.
허나,
이제 그대는 일떠서리라
　　기쁨의 락원으로,
　　자유의 변강으로
　　…

아프리카의 한 진보적 시인은 이렇게 웨쳤다. 이것은 한 시인의 웨침만이 아니다. 2억 6천만의 아프리카 인민들은 신 구 식민주의자들의 숨통을 졸라 매고 그들의 마수를 꺾어 버리며 자유로운 아프리카를 위한 격렬한 투쟁에 일떠서고 있다.

이 투쟁 속에서 아프리카 대륙은 전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되고 있다.

아직 독립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제국주의의 마수가 다시 뻗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식민주의자들의 철쇄를 분쇄하기 위한 무장 투쟁이 더욱더 세차게 진행되고 있고 이미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나라들에서는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며 경제적 및 군사적 면에서 식민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치렬히 벌어지고 있다.

투쟁의 불'길 속에서 최근 2 년 간에만 하여도 6 개의 독립 국가들이 출현하였는바 1962년에는 알제리아 인민들이 불란서 제국주의자들과의 7 년 반의 영웅적 무장 투쟁을 거쳐 민족적 독립을 달성한 것을 비롯하여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가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작년에는 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케니아와 잔지바르가 장기간의 영국 식민지 통치 기반에서 해방되였고 영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작되였던 《중앙 아프리카 련방》이 해체되였으며 영령 잠비아에서 내부 자치제가 실시되게 되였다.

이리 하여 제 2 차 대전 전에는 독립 국가가 단 4 개에 불과하던 아프리카에 지금은 35 개의 나라들이 이러저러한 정도의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였다.

물론 적지 않은 독립 국가들이 식민주의자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예속 하에서 완전히 벗어 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이 나라 인민들이 각종 형태의 식민지적 압박과 착취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간고한 투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식민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이미 달성한 빛나는 승리는 아프리카의 새 력사 창조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또한 아프리카에서 제국주의의 식민지 체계를 종식시키고 제국주의 후방을 축소시키며 국제 자본의 세력을 크게 약화시킴으로써 제국주의 멸망의 가일층의 촉진과 세계 평화의 보장에 거대한 영향을 준다.

투쟁의 격류 속에서

제 2 차 대전 이후 치렬한 투쟁의 불'길 속에서 아프리카의 면모가 크게 개변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니아살랜드, 남북 로데시아, 서남 아프리카 등 24 개의 나라들이 식민지 철쇄에서 벗어 나지 못 하고 있으며 명목 상의 정치적 독립은 달성하였으나 적지 않은 나라들이 여전히 식민지적 예속 하에 있다.

아직 독립을 달성하지 못 한 나라들은 주로 아프리카의 동부,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오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격렬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식민지 인민들의 투쟁에서 무장 투쟁은 그의 주되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식민주의자들이 민족적 해방과 독립에 대한 사소한 념원에 대해서도 야수적인 폭압으로써 대답하며 원쑤들이 발끝까지 무장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인민들의 해방과 독립, 자유의 유일한 길은 오직 손에 무장을 튼튼히 들어 잡고 원쑤들과 가장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인민들은 장기간에 걸치는 압제자들과의 크고 작은 수 많은 전투들을 통하여 각성되였으며 자기의 투쟁 방법을 발견하였다. 최근 년간 식민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달성한 빛나는 승리의 하나 하나가 바로 무장 투쟁을 비롯한 치렬한 투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영웅적 알제리아 인민의 무장 투쟁에 고무된 앙골라 인민은 포도아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용감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무장 투쟁 과정에서 앙골라 인민 무장대의 력량은 초기의 수십 명으로부터 오늘은 3만 명으로 장성하였으며 간악한 폭압자들을 련속 소탕하면서 자기들의 활동 범위를 전국 13 개 주 중 9 개 주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포도아령 기니아 인민 유격대는 남부의 중요한 지역을 통제하고 있으며 북부의 수림 지대에 유격 투쟁 근거지를 창설하고 제국주의자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유격대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식민지 당국은 마비 상태에 빠지고 있으며 식민주의 군대는 불과 몇 개 도시들을 겨우 통제하고 있을 뿐이다.

무장 투쟁의 불'길은 남북 로데시아, 니아살랜드, 모잠비크, 스워질랜드 등 나라들에서도 세차게 전개되고 있다.

인종 차별이 우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주의자들과 그 괴뢰들을 반대하는 무장 투쟁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최근의 보도들에 의하면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콩고에서도 아둘라 도당을 반대하는 무장 부대가 광범한 지역에서 활동을 개시하고 있는바 괴뢰 당국은 이에 당황하여 비상 사태를 선포하였다고 한다.

자주적인 발전을 지향하며 외래 간섭자들을 반대하는 길에서 달성한 잔지바르 인민의 승리, 영국 장교들을 축출하기 위한 탄가니카, 우간다, 케니아 병사들의 폭동 등은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처럼 아프리카에서 무장 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이 독립을 스스로 《선사》하지 않으며 식민지 리권을 위하여 식민지 인민들에 대한 탄압에 혈안이 되고 있는 조건에서 무장 투쟁은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필연적 귀결로 된다.

경험은 오직 식민지 인민들이 손에 무장을 틀어 잡고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여 싸울 때만이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를 분쇄하고 독립도, 자유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공담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은 식민주의자들의 척추를 꺾어 버리기 위한 단호한 투쟁, 무장 투쟁을 적극 지지할 대신에 온갖 구실을 붙여가면서 이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

그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들과 기타 온갖 기회를 리용하여 식민주의자들의 폭압과 략탈을 당하고 있는 인민들에게 《평화적 공존》, 《군비 철폐》를 내려 먹이려 하며 그것이 아프리카 인민들의 당면한 선차적 과업이라고 떠들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아프리카 인민들의 무장 투쟁이 인류를 멸망케 하는 핵 전쟁의 《불씨》로 된다고 하면서 아프리카 인민들을 투쟁에서 물러 서게 하려고 협박 공갈하고 있다.

식민지 예속 하에 있는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식민주의자들과의 《평화적 공존》을 설교하며 《군비 철폐》에 대하여 떠드는 사람들의 잠꼬대 같은 《리론》이 싸우는 아프리카 인민들의 랭소를 받고 있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다.

무장 투쟁과 함께 식민지적 폭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파업, 시위, 군중 집회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니아살랜드 인민들은, 《영국인들은 이 땅에서 손을 떼라》는 구호 하에 영국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모잠비크 인민들은 《모잠비크 아프리카인 반제 통일 전선》을 결성하고 대중의 행동 통일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들의 지도 하에 모잠비크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운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 작년 8월 이 나라에서 3,000여 명의 부두 로동자들이 식민지 당국의 전횡을 반대하여 단행한 파업은 식민주의자들의 야수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 주일 간이나 계속되였다.

북로데시아, 남아 련방, 서남 아프리카 등 식민지 나라들에서도 반동적 인종 격리 정책을 반대하는 원주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식민지 나라 인민들의 무장 투쟁을 비롯한 각종 투쟁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 국가들로부터 광범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국제적 련합을 형성하고 있는 조건에서 아프리카 인민들은 더욱 단결되고 호상 지지 성원할 때만이 련합된 제국주의 세력을 맞받아 성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것이다.

1955년에 있었던 반둥 회의 이후 작년 2월 모쉬에서 있었던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회의, 그리고 작년 5월에 있은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회의들에서는 아프리카 식민지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지지 성원하며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호상 협조 등 문제가 토의되였다. 이 회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합된 력량을 시위하였다. 회의 이후 많은 독립 국가들이 국가 예산의 일부를 해방 운동 원호 기금으로 배당하였으며 포도아 식민주의자들과 남아프리카 인종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정치, 경제 및 기타 분야에서 집단적인 제재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식민지 기반 하에 있는 나라들과 지역들에서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이 더욱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 준다.

식민주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판가리 싸움에서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나라 인민들은 자기의 력사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서고 있다.

이 나라들 앞에는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부식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령역에서 식민지 통치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며 계속 민족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길로 나갈 때만이 아프리카의 독립 국가들은 나라의 락후와 빈궁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자주 독립 국가로서 당당히 발전할 수 있다.

사실 상 아프리카 인민들이 투쟁의 불'길 속에서 달성한 정치적 독립은 민족 해방 혁명의 첫 걸음에 불과한 것이다.

신구 식민주의자들은 오늘 갓 독립한 나라들에서 이 나라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난관을 리용하여 경제적으로 완전히 예속시키며 달성한 정치적 독립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듦으로써 식민주의의 멍에를 다시 들씌우려 하고 있다.

그들은 《협조》와 《원조》를 표방하면서 그것을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예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신생 독립 국가들은 제국주의자들의 《협조》와 《원조》 정책을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주로 자체의 자원과 힘에 의거하여 자기의 튼튼한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자립 경제를 건설할 때만이 이미 달성한 독립도 공고히 할 수 있고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압력도 성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으며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 신생 독립 국가들이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완전히 벗어 나며 자주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사회주의 나라들의 원조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나라들에 대한 사회주의 나라들의 원조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침투를 성과적으로 분쇄하며 이 나라들의 자주적인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에서 주어져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는 아무런 부대 조건도 없고 허심하고 성의 있는 것이여야 하며 그 어떠한 민족 리기주의적 목적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오늘 아프리카의 많은 독립 국가들이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130여 년 간에 걸친 불란서 식민주의의 지배에서 해방된 알제리아 인민들은 불란서 식민주의자들과 국내 반혁명 세력의 온갖 반항을 물리치면서 민족 회의를 선거하고 새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일련의 경제적 개혁들을 진행하였다. 알제리아 정부는 토지 개혁에 대한 법령을 채택하고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이 소유하였던 300만 헥터에 달하는 토지와 500여 개의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여 침체되였던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다.

말리 공화국은 민족 경제 건설에서 부대 조건이 붙는 일체 외국 원조를 배격하고 자국의 힘에 의거하여 국민 경제에 대한 전반적 지배를 확립하고 있다.

소말리, 우간다 및 기타 나라들에서도 식민주의 잔재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보다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는 종국적으로 청산되여야 한다

제 2 차 대전 후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위대한 변화와 민족 해방 투쟁의 빛나는 승리에도 불구하고 식민주의 제도는 아직 완전히 매장되지 않았으며 신 구 식민주의자들은 많은 지역에서 의연히 류혈적 탄압과 강도적 략탈을 감행하고 있다.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 밑에 구 식민주의자들은 앙골라, 포도아령 기니아, 모잠비크 등 식민지 나라들에 무력을 대량적으로 투입하여 피비린내 나는 식민지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 남북 로데시아, 니아살랜드, 베추아날랜드, 스위질랜드 등 나라들에서 수 많은 인민들을 체포 투옥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과거와 같이 로골적이며 직접적인 형태로 식민지 통치를 유지할 수 없는 조건에서 아프리카의 식민지 나라들에 이러저러한 정도의 정치적 독립을 허여한 후 이 나라들을 각종 방법으로 의연히 예속 상태에 얽어매 두려 하고 있다. 식민주의자들은 많은 나라들에서 주요 경제 명맥을 틀어 쥐고 략탈을 강요하고 있으며 독립 국가들의 내정에 공공연하게 간섭하고 있다.

식민주의자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내란을 도발하며 진보적 정부를 전복하며 신생 독립 국가들 간의 반목과 충돌을 야기시키는 등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작년 9월 알제리아에서 발생된 벤 벨라 정부를 반대하는 베르트족의 무장 반란과 이에 뒤'이어 발생된 알제리아-모로코 국경 충돌 사건 그리고 가나 대통령 느크루마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 등은 모두·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책동의 일환이다.

특히 신 식민주의의 아성인 미제는 아프리카에서 저들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악랄한 책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제는 아프리카에서의 반제 민족 해방 운동의 불을 끄며 붕괴되는 식민지 체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경제적 및 군사적 《원조》를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우세한 저들의 경제력에 의거하여 구 식민주의자들의 세력 범위에 대거 침투하고 있다. 《원조》의 미명 하에 실시하는 자본 투자, 《평화군》, 《평화를 위한 식량 계획》 등이 바로 그러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1960년 현재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투자액은 1943년에 비하여 6 배나 되는 10억 딸라에 달하였다. 미국 독점체들은 아프리카 대륙에 400여 개의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이 대륙에서 4억 딸라의 리윤을 짜내고 있다.

콩고에서 미제는 자기의 침략 도구인 《유엔군》과 아둘라 괴뢰 도당을 리용하여 영국, 벨기, 불란서 등 구 식민주의자들을 구축하고 자기의 지배를 확립하였다.

제반 사실은 아직 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는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으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신 구 식민주의가 아프리카 인민들의 주되는 위협으로 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민족적 독립도, 사회적 해방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말해 준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식민주의의 변호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 제도가 거의 다 소멸되였다고 말하면서 더는 투쟁할 필요가 없다는듯이 떠들고 있다.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신 구 식민주의자들의 략탈 및 침략적 본질을 엄폐하며 인민들의 당면한 사회적 및 민족적 문제를 묵살하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식민주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오직 아프리카 인민들에 대한 《사심 없는 원조》를 줌으로써 공동의 《번영》이 이루어질 것을 바랄 뿐이라고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

아프리카의 엄연한 현실에 대하여 눈을 감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에 맞장구를 쳐서는 안 된다. 아프리카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무마하며 나아가서는 그를 포기케 하려 하는 것은 피압박 인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저들만 편안히 살려는 것이다.

* *

오늘 아프리카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은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의 일환으로서 제국주의 세력을 배후로부터 타격을 주어 그 력량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사회주의와 평화 력량의 강화에 거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될수록 제국주의 침략 세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사회주의와 평화 력량은 더욱 강화된다.

레닌은 지금까지 력사 밖에서 오직 력사의 대상으로서만 간주되여 오던 식민지 예속 국가의 수억만 인민들의 투쟁이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과 결합될 때 세계 제국주의는 붕괴되고야 말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주의 나라들을 비롯한 국제 로동 계급들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 성원은 국제 로동 계급의 고상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 투쟁의 혁명적 의의를 과소 평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지원을 하나의 부담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나라들의 위력이 장성되면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독립도, 자유도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는듯이 떠들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론법은 결국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정책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며 식민지 피압박 인민들로 하여금 영원히 제국주의의 노예의 처지를 감수하라는 것이다.

실로 이러한 사람들은 《피와 오물 투성이가 된 제국주의적 군주제와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지의 종복》(레닌 전집 제 22 권, 198 페지)외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하

여 왔으며 또 지지하고 있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것을 자기의 대외 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오늘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 력량과 국제 로동 계급 그리고 세계 평화 력량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으면서 료원의 불"길로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 탄압도,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기만적 책동도 아프리카 인민들의 이 거대한 력사적 조류를 가로막을 수 없다.

아프리카 인민들의 거세찬 투쟁 속에서 신구 식민주의자들은 종국적으로 매장되고야 말 것이다.

근 로 자 제 3 호 (루계 241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2월 3일 발 행 • 1964년 2월 5일

ㄱ—430076 값 40 전